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2007. 5.

한국경제연구원

집필진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연구위원	안순권
연구위원	이태규
연구위원	김학수
부연구위원	김필현
선임연구원	김창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및 임금	16
3. 노동시장	20
4. 금융시장	22
5. 외환시장	37
6. 해외경제	42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47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49
1. 대내외 여건	51
2. 국내경제전망	58
3. 위험요인(Downside Risk)	65
제 III 장 이슈분석: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67
1.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69
2. 독일의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	73
3. 시사점	85
〈부록〉 주요 경제지표	87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8
<표 I-5> 투자	10
<표 I-6> 품목별 수출	12
<표 I-7> 지역별 수출	13
<표 I-8> 용도별 수입	14
<표 I-9> 최근 경상수지	15
<표 I-10> 물가 추이	17
<표 I-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9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19
<표 I-13> 취업자 추이	20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1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2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26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27
<표 I-18> 기업자금조달 추이	28
<표 I-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29
<표 I-20> 은행의 가계대출	30
<표 I-21> 가계신용 추이	31
<표 I-2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32
<표 I-23> 가계 재무비율 추이	33
<표 I-24>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34
<표 I-25>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35
<표 I-26> 주식시장 주요지표	36
<표 I-27> 원/달러 환율	38

〈표 I-28〉 자본 유출입 추이	41
〈표 I-29〉 미국의 경제지표	42
〈표 I-30〉 일본의 경제지표	43
〈표 I-31〉 EU의 주요 경제지표	44
〈표 I-32〉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5
〈표 I-33〉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46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52
〈표 II-2〉 대통령 선거와 성장률의 변동	53
〈표 II-3〉 성장률과 대통령 선거	54
〈표 II-4〉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55
〈표 II-5〉 2007년 중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전망치	56
〈표 II-6〉 미분양 아파트 추이	60
〈표 II-7〉 주요 아시아 통화의 대원화 환율	63
〈표 II-8〉 2007년 국내경제전망	64
〈표 III-1〉 독일 경제지표 추이	69
〈표 III-2〉 독일의 수출 현황	70
〈표 III-3〉 독일 자영업자 비중과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74
〈표 III-4〉 고용보호법규(EPL) 강도 비교	75
〈표 III-5〉 독일의 재정안정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4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6
<그림 I-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8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24
<그림 I-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	24
<그림 I-11> 최근 콜금리 추이	25
<그림 I-12> 신용스프레드 추이	25
<그림 I-13> 주가지수 추이	36
<그림 I-14> 주요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39
<그림 I-15> 소비자 기대지수	47
<그림 I-16> 기업 전망 BSI	47
<그림 II-1> 가계대출 추이	56
<그림 II-2> 미분양 아파트 추이	59
<그림 II-3> 중국의 수출입증가율 추이	61
<그림 III-1>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76
<그림 III-2> 독일의 고용환경 지수 동향	77

I. 최근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1/4분기 성장률, 지난해 4/4분기 대비 소폭 하락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 확대 등에 기인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개선, 수입증가율 확대로 순수출 기여도 크게 악화
 - 전기비 연율: 5.0%('06년 3분기) ⇒ 3.8%('06년 4분기) ⇒ 3.6%('07년 1분기)

■ 제조업 생산 부진,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 반도체 · 영상 · 음향통신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침.
-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높은 생산 증가로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 전년동기비: 4.5%('06년 3분기) ⇒ 4.8%(4분기) ⇒ 5.5%('07년 1분기)

■ 소비증가세 개선

- 내구재판매 확대를 중심으로 소비증가세 개선
 - 소비재판매: 4.1%('05년) ⇒ 4.7%('06년) ⇒ 7.2%('07년 1분기)

■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 기계류 투자 호조로 1/4분기 설비투자추계 11.2% 증가

■ 건설투자 증가세 지속

- 공공부문 공사실적 호조로 1/4분기 국내건설기성(경상) 6.5% 증가

- 4.2%('06년 1분기) ⇒ -0.3%(2분기) ⇒ 4.8%(3분기) ⇒ 6.0%(4분기)
⇒ 6.5%('07년 1분기)

■ 수출호조세 유지

- 14.8%의 1/4분기 수출증가율을 시현하며 두 자릿수의 증가율 지속
 -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둔화, 반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은 호조

■ 수입증가세 둔화 유지

- 원자재 수입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수준인 13.1% 유지
 - 수입총액(전년동기 대비): 21.1%('06년 3분기) ⇒ 13.0%(4분기)
⇒ 13.1%('07년 1분기)

■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06년 2/4분기 이후 지속되던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전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도 적자규모는 2006년 1/4분기보다 3억 달러 확대된 15.2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상품수지 흑자 확대 불구,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기인

■ 소비자물가 안정세

- 농축수산물 및 서비스가격 상승에도 불구, 상품가격의 0.7% 낮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안정세
 - 전년동기비: 22.5%('06년 3분기) ⇒ 2.1%(4분기) ⇒ 2.0%('07년 1분기)

■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 2006년 3/4분기를 고점으로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 하락 지속
 - 전년동기비: 3.1%('06년 3분기) ⇒ 2.0%(4분기) ⇒ 1.8%('07년 1분기)

■ 수입물가(원화기준), 소폭 상승

- 2006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상승
 - 전년동기비: 5.1%('06년 3분기) ⇒ -0.4%(4분기) ⇒ 1.2%('07년 1분기)

■ 임금상승률 소폭 상승

- 2007년 1~2월 월평균 임금 누계는 6.1% 상승, 지난해 5.6%의 전 산업 임금상승률을 소폭 상회

■ 양적·질적 고용지표 개선 미흡

- 1/4분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6.4만 명 증가에 그친 가운데, 청·중년층의 취업자수나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
 - 장년층(50세 이상)과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만 각각 6.2%와 6.4%씩 증가
-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시장금리, 3월 말 이후 상승세로 반전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불안,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 등으로 2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는 3월 말부터 상승세로 반전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및 주식시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국고채 및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최근 각각 5%대, 5.4%대까지 회복

■ 원/달러 환율, 연초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3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 4월 말 환율은 929원으로 3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 반전 추세를 지속
 -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매입의 매도로의 전환,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지표 경기 개선 등에 기인

■ 경기국면 판단: 실물지표 호조, 경제심리 개선으로 경기회복 국면 진입

- 내수기여도 증가, 수출 호조 지속, 재고/출하 비율 하락 등 경제지표 개선
- 북핵문제 진전, 한·미 FTA의 타결 등 경제외적 요인의 개선

2. 해외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세 지속

- 실질GDP성장률(전기비 연율) 2006년 4/4분기 2.5%, 2007년 1/4분기 1.3%
 - 산업생산 증가율도 4/4분기 3.5%, 2007년 1월 -0.4%, 2월 0.8%, 3월 -0.2%로 현저한 둔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 1월 2.1%에서 3월에는 2.8%로 확대
 - 2006년 4/4분기 3.2% ⇒ 2007년 1월 2.1% ⇒ 2월 2.4% ⇒ 3월 2.8%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지속

- 4/4분기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5.5%로 대폭 증가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지속
 - 2006년 4/4분기 11.2% ⇒ 2007년 1월 19.0% ⇒ 2월 9.7%

■ EU경제: 건조한 회복세

- 2006년 4/4분기 성장률(전기비)은 0.9%로 성장세 가속
 - 산업생산은 1월 0.5% 감소했다가 2월 0.5% 증가로 회복
 - 실업률은 4/4분기 7.6%를 기록한 후 2007년 1~2월간 7.4%, 7.3%로 하락 추세 유지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 2007년 1/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은 11.1%로 2006년 4/4분기 10.4%보다 확대
 - 산업생산 증가율도 2006년 4/4분기 14.8%에서 2007년 1/4분기 18.3%로 증가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4/4분기 24.5%에서 올 1/4분기에는 25.3%로 확대

■ 작년 11월 시작된 국제유가의 상승기조 지속

- 1월 말 미 동북부의 한파예보, OPEC의 2월 감산 임박으로 상승기조를 탄 유가는 이란발 중동정세 불안정과 나이지리아 석유노조의 파업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임.
 - 두바이유: 1월 말 52.89달러, 2월 말 57.69달러, 3월 말 64.10달러

II. 2007년 경제전망

1. 2007년 대내외 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 성장률 소폭 둔화, 반면 국제유가는 안정

-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
 - 유로 및 일본경제는 회복세 지속
 - 중국경제는 고성장세 지속(IMF의 중국 성장률 전망: 10.0%)
 - 미국경제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가 최근 가속화
-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하지만 최근 중동, 나이지리아 등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관련한 수급차질의 우려로 상향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달러화, 약세기조 전망
 - 경상수지 적자 지속, 미·EU, 미·일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 주요국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등

■ 대내여건: 지난해 말 전망 때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

- 부정적 요인
 -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
 -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부담 증가, 가계부채의 급증
- 긍정적 요인
 - 한·미 FTA 협상 타결
 - 북핵 관련 리스크 하락
 - 부동산 가격 안정

2. 2007년 경제전망

■ 성장률: 점차 확대되겠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2007년 연간 성장률 4.4%

- 지난해 4사분기~올 1사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
 -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경기바닥 다지기: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 1/4분기 성장률 전기비 0.9%
 -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저효과: 지난해 성장률이 상고하저의 사이클을 보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은 높아질 가능성
 - 경제외적 위험요인 완화: 북핵 관련 리스크 하락 등

- 하지만 성장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 ⇒ 2007년 연간 성장률 4.4%

- 미국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중국의 부품 소재 및 자본재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입증가율 둔화 추세 ⇒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세로 둔화 전망
- 주택보유자 세부담 증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비회복세 제약
-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투자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에 머물겠으나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전망

- 연초 교통요금, 의료보험 등 공공요금 인상 등과 함께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오름세가 빨라질 전망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전망

-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부족 및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

■ 원화환율: 하락세를 지속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

- 미국 경기둔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미국과 유로 간 금리 격차 해소 등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많아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능성
 - 하지만 그동안 원화의 높은 절상률,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약

■ 시장금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수부문의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등은 금리의 주요 상승압력으로 작용
 - 단, 부동산 가격 안정, 미국 금리인하 등은 국내 금리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위험요인(Downside Risk)

■ 이상과 같은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음.

- 고유가 재현 가능성, 주요 통화의 환율불안, 급격한 원화 강세
- 부동산 가격 급락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돌발사태 발생과 정치·사회상황 악화

〈표 1〉 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GDP	5.0	4.0	4.1	4.5	4.8	4.4
(SA, 전기비%)		0.9	0.9	1.7	1.2	
민간소비	4.2	4.0	4.0	4.1	4.3	4.1
건설투자	-0.4	4.3	4.1	2.7	0.9	2.8
설비+무형고정자산	7.8	9.6	7.8	6.2	7.7	7.8
수출(재화+서비스)	12.4	11.2	9.6	8.8	8.6	9.5
수입(재화+서비스)	11.3	11.6	10.4	10.0	11.9	11.0
소비자물가	2.2	2.1	2.3	2.4	2.9	2.4
생산자물가	2.3	1.8	1.7	1.2	2.3	1.7
경상수지(억 달러)	60.9	-15.2	-11.4	-15.4	2.1	-39.9
상품수지(억 달러)	292.1	61.8	67.5	53.3	55.0	237.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318.5	865.6	913.2	945.7	967.1	3691.7
증가율%	14.8	14.2	11.2	10.9	9.1	11.2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026.3	803.8	845.8	892.5	912.1	3454.1
증가율%	18.4	13.9	13.2	12.9	16.5	14.1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1.2	-77.0	-78.9	-68.7	-52.9	-277.5
환율(원/달러, 평균)	955.9	938.9	935.0	927.0	921.0	930.5
회사채수익률(3yrs, AA-)	5.2	5.3	5.3	5.4	5.5	5.4
실업률(%)	3.5	3.6	3.4	3.5	3.6	3.5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Ⅲ.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1. 노동시장 개혁

- 독일 정부는 복지 의존에 따른 근로기피 억제, 자영업 지원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개혁을 추진
 -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Hartz I~Ⅲ법을 시행, 연방고용청 및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일자리 취업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
 - 실업경감을 위한 자영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창업보조 프로그램을 실시
 - 2005년 1월부터 Hartz IV법을 시행하여 실업급여제도를 개정하고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축소했으며, 2006년 2월부터 취업기피 등 실직자의 구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독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임금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보조 등 인건비를 임금의 40% 이하로 감축
 - 독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프랑스 등에 이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로 유연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독일 노사의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노동시간 연장 합의 확산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비용 하락 및 고용환경 개선과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를 유발하여 내수 확대의 기반을 조성
 -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은 독일의 실효환율을 하락시켜 독일제품의 가격경쟁력

을 강화시킴.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고용전망도 개선됨.

2. 공공부문 개혁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큰 정부의 폐해를 점차 심화시킴.

- 복지향상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비중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
-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입지 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

■ 독일 정부는 2002년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

-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실현수범하기 위해 재정지출 합리화, 공무원 감축 및 급여 인상 억제도 시행
-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전체의 2.6%) 감원 계획
- 연방정부 공무원 및 독일연방은행 직원의 상여금 삭감
- 산업, 주택, 농업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
- 민관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재정개혁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3년 GDP 대비 4%에서 2006년 1.3%로 하락

-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

3. 시사점

-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및 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못지않게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 및 상여금 삭감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 함.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
-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및 임금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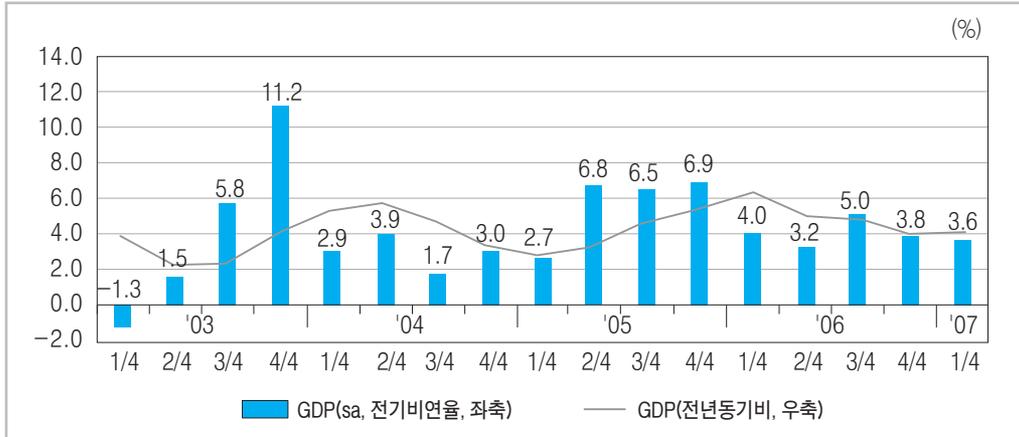
■ 1/4분기 성장률, 지난해 4/4분기 대비 소폭 하락

- 2007년 1/4분기 실질GDP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은 3.6%로, 2006년 4/4분기(3.8%) 대비 0.2%p 하락
 - 전기비 연율: 5.0%(’06년 3분기) ⇒ 3.8%(’06년 4분기) ⇒ 3.6%(’07년 1분기)
 - 전기비: 1.2%(’06년 3분기) ⇒ 0.9%(’06년 4분기) ⇒ 0.9%(’07년 1분기)

-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을 살펴보면
 - 민간소비는 2006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호전
 - 건설투자는 2006년 3/4분기 이후 증가세 지속 가운데 증가율 다소 둔화
 - 2006년 4/4분기에 크게 둔화된 설비투자는 17.2%로 확대
 - 2006년 2/4분기 이후 둔화된 수출증가율은 13.5%로 반등
 - 2006년 4/4분기 -2.5%를 보였던 수입증가율은 23.5%로 큰 폭 반전

-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개선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크게 악화
 - 설비투자를 비롯한 내수부문의 호조세로 인해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6년 4/4분기 3.2%p에서 2007년 1/4분기 5.4%p로 개선
 - 전년도 4/4분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보인 수출의 성장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폭의 수입증가율로 인해 순수출의 기여도는 2006년 4/4분기 2.5%p에서 2007년 1/4분기 -2.4%p로 크게 악화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민간소비	3.6	4.9	2.2	3.5	3.9	4.2	5.5
건설투자	-0.2	0.0	-3.5	8.4	7.8	-0.4	5.0
설비투자	5.7	-3.9	9.1	16.1	0.3	7.6	17.2
수출(재화와 서비스)	8.5	10.9	21.1	9.2	1.8	12.4	13.5
수입(재화와 서비스)	7.3	15.9	19.4	9.0	-2.5	11.3	23.2

자료: 한국은행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p)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내수	2.4	2.0	1.5	4.7	3.2	2.9	5.4
민간소비	1.8	2.4	1.1	1.7	1.9	2.1	2.7
건설투자	0.0	0.0	-0.5	1.3	1.2	-0.1	0.8
설비투자	0.6	-0.4	1.0	1.8	0.0	0.8	1.9
수출(재화와 서비스)	4.4	6.0	11.8	5.3	1.1	6.7	7.9
순수출	1.3	-1.0	2.9	1.0	2.5	1.6	-2.4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 제조업 생산 부진

- 제조업 생산은 지난 2년 연속 부진했던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산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침.
 - 지난해 25.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업종은 전년 1/4분기 대비 4.1% 증가
 -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제조업지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 지속했던 지난해와 달리 전년 1/4분기 대비 4.4%의 저조한 증가
 - 2006년 8.6%의 증가를 보였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도 전년 1/4분기 대비 2.1%의 저조한 성장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산업은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년 1/4분기 대비 17.2%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세 시현
 - 경공업 부문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전년 1/4분기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부진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큰 변화 없이 지난해 1/4분기 수준

■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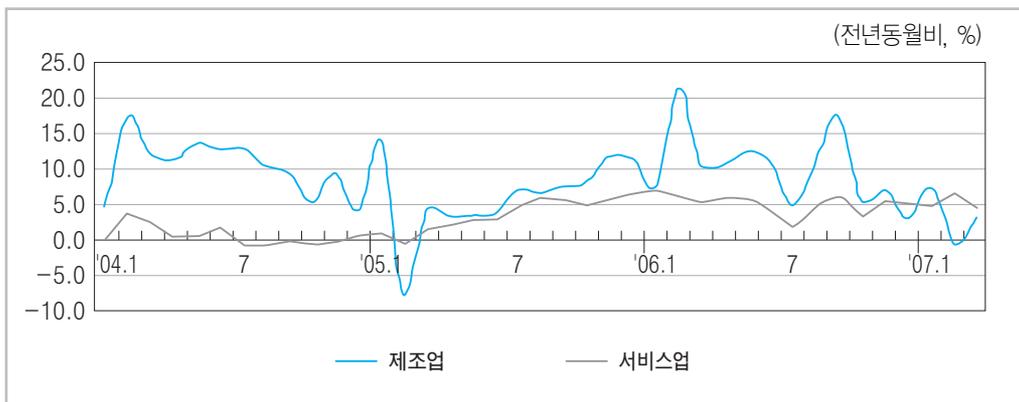
-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하여 2006년 3/4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

- 전년동기비: 4.5%('06년 3분기) ⇒ 4.8%(4분기) ⇒ 5.5%('07년 1분기)
- 월별로는 2월을 고점으로 3월 증가폭 감소

-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이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상회

-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6년 4/4분기의 감소세에서 상승 반전,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
- 부동산 및 임대업은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기는 했으나 전년도의 높은 증가세는 크게 둔화(14.3%('06년 4분기) ⇒ 5.9%('07년 1분기))
- 통신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크게 하회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제조업 전체	6.2	13.4	12.0	11.8	5.5	10.5	3.0	
중공업	8.3	15.6	14.7	13.9	7.0	12.6	4.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8.6	-16.8	-9.4	6.4	22.5	-0.1	17.2	
반도체·영상·음향·통신	20.1	34.7	33.7	25.1	11.8	25.2	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4	15.7	8.6	7.6	3.5	8.6	2.1	
경공업	-2.8	3.7	0.4	2.4	-1.8	1.1	-2.0	
ICT지수	16.9	29.5	29.6	23.3	12.0	22.8	4.4	
평균가동률	-0.7	2.9	1.6	1.0	1.5	1.7	0.1	
서비스업 전체	3.7	6.2	5.4	4.4	4.8	5.2	5.5	
도소매업	2.2	3.7	4.2	4.3	3.7	3.4	4.8	
숙박 및 음식점업	0.3	4.0	2.4	2.3	-0.2	1.5	1.7	
운수업	4.2	6.4	6.3	5.9	7.0	5.0	6.7	
통신업	4.1	2.3	2.9	3.2	2.6	3.5	3.1	
금융 및 보험업	7.3	13.2	9.2	4.8	4.7	10.6	8.6	
부동산 및 임대업	8.5	10.4	8.2	7.4	14.3	9.4	5.9	
사업서비스업	2.7	5.6	5.7	5.7	6.3	3.7	5.3	
교육 서비스업	0.7	1.4	2.4	1.4	4.4	1.1	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3	11.1	8.1	11.9	8.9	9.4	9.6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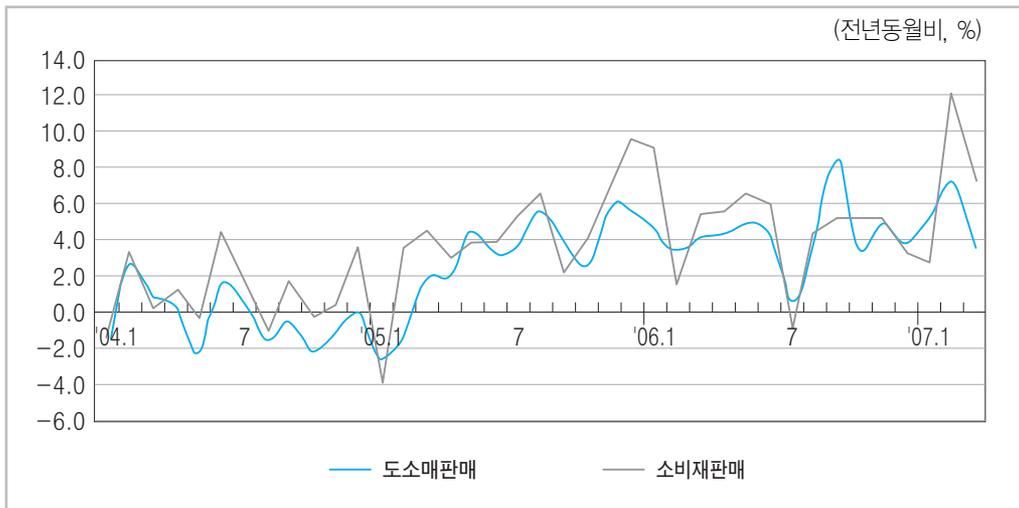
(3) 소비

■ 소비증가세 개선

- 도소매판매와 소비재판매 모두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증가
 - 도소매판매: 2.9%('05년) ⇒ 4.2%('06년) ⇒ 5.2%('07년 1분기)
 - 소비재판매: 4.1%('05년) ⇒ 4.7%('06년) ⇒ 7.2%('07년 1분기)

- 소비재판매 증가는 내구재판매 증가(17.5%)에 기인
- 백화점 매출은 감소,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매출은 소폭 개선, 대형할인점과 무점포판매 매출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2%와 7.9% 증가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도소매판매	2.9	4.0	4.5	4.4	4.0	4.2	5.2
소비재판매	4.1	5.3	6.1	2.9	4.5	4.7	7.2
백화점	3.0	8.2	5.9	0.4	0.7	3.7	-2.5
대형할인점	8.3	7.2	10.1	6.4	11.6	8.8	10.2
무점포판매	14.3	21.4	20.1	21.4	5.2	16.5	7.9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1.3	-1.4	1.7	0.4	1.7	0.6	2.2

자료: 통계청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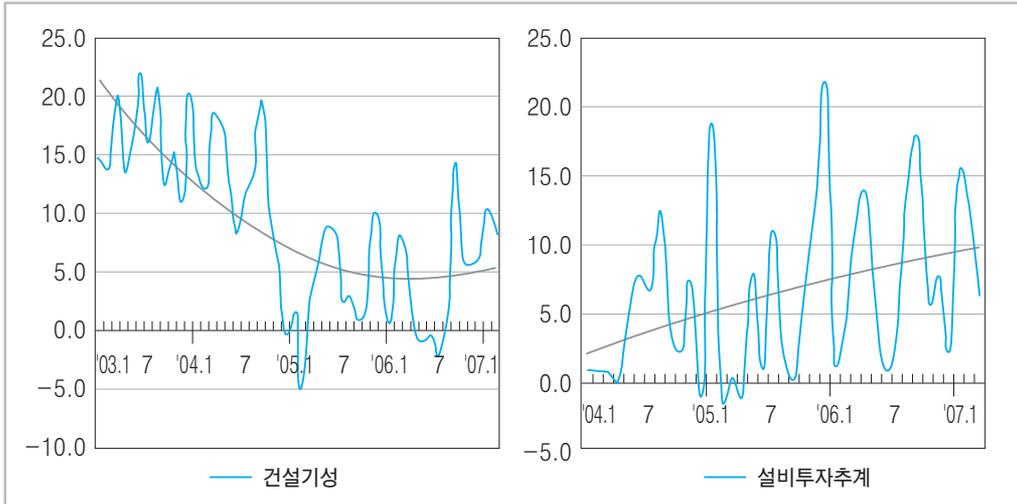
■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 2006년 7.3% 증가를 보였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기계류 투자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11.2%로 확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하여 2006년 1/4분기 증가율 13.6%를 소폭 상회
 - 2006년 10.4%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친 민간부문 비제조업(금융보험업의 현금자동처리기 등)의 기계발주가 전년동기 대비 24.1%로 크게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기계발주(지방자치단체의 데스크톱 PC 등) 증가세도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제조업 기계발주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

■ 건설투자 증가세 지속

- 국내건설기성(경상)은 공공부문의 공사실적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하여 2006년 연간 증가율 3.7%를 상회
 - 4.2%('06년 1분기) ⇒ -0.3%(2분기) ⇒ 4.8%(3분기) ⇒ 6.0%(4분기) ⇒ 6.5%('07년 1분기)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도 2006년 연간 증가율 9.0%를 크게 상회하여 전년동기 대비 26.3% 증가
 - 2006년 6.3% 감소했던 공공부문의 건설발주는 2007년 1/4분기에 49.3%로 크게 반등
 - 민간부문 건설발주도 전년동기 대비 21.8% 증가
 - 그러나 지난해 연간 55.9% 증가한 민자 건설발주는 전년동기 대비 64.3% 하락 반전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5〉 투자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설비투자추계(불변)	6.3	6.2	6.7	11.8	5.1	7.4	11.2	
국내기계수주(불변)	5.7	13.6	24.4	21.0	16.7	18.8	15.2	
공공	-1.3	-31.1	24.7	19.0	22.1	7.1	14.8	
민간	6.7	20.2	24.4	21.3	15.8	20.4	15.2	
제조업	-0.7	32.0	30.0	35.0	32.8	32.3	6.9	
비제조업	13.9	9.7	19.1	10.8	2.9	10.4	24.1	
건설기성액(경상)	4.1	4.2	-0.3	4.8	6.0	3.7	6.5	
건설수주(경상)	7.3	-8.5	-14.7	37.1	27.1	9.0	26.3	
공공부문	-1.7	-12.4	-29.9	21.2	2.7	-6.3	49.3	
민간부문	14.5	-3.9	-6.0	36.8	28.3	12.8	21.8	
민자	-36.4	-64.6	-73.0	552.5	362.1	55.9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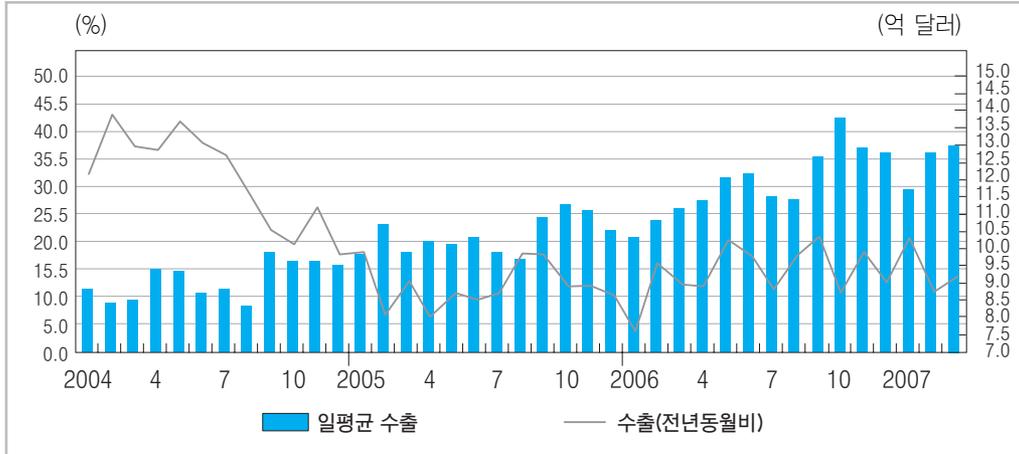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수출

■ 수출호조세 유지

- 2007년 1/4분기 수출증가율은 14.8%로 2005년 3/4분기부터 계속 두 자릿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유지
 - 1월 일평균 수출금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20.8% 증가한 11.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월과 3월 일평균 수출금액도 각각 전년동월 대비 10.3%와 13.6% 증가한 12.8억 달러와 13억 달러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는 지난해 4/4분기 수출금액인 111.8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98.9억 달러에 그쳤으나 전년동기 대비 20.8% 증가
 -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연간 11.6%에서 1/4분기 3.4%로 크게 둔화
 - 지난해 32.8%와 24.8%의 증가를 보인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은 1/4분기에도 20.2% 31.2%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의 수출 감소세는 각각 지난해 연간 -1.7%와 -10.9%에서 올 1/4분기 -0.2%와 -4.3%로 완화되었으나 증가세로의 반전에는 실패
- 지역별 수출
 - 1/4분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의 증가세를 상회하는 19% 수준이나 2005년 연간 24.4% 수준에는 미달
 - 대ASEAN 수출실적은 지난해의 높은 증가세를 크게 상회
 - 대일본 수출은 2월부터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1/4분기 실적은 1월 큰 폭의 감소로 인해 -1.3%
 -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대미국 수출은 1/4분기에 증가세로 재반전
 - 대EU 수출도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표 1-6〉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출 전체	12.0	10.6	16.9	16.3	13.8	14.4	14.8
반도체	13.1	13.9	16.3	19.6	48.1	24.6	20.8
자동차	11.0	10.5	7.8	15.4	13.4	11.6	3.4
무선통신기기	4.8	1.4	-2.0	1.8	-7.4	-1.7	-0.2
컴퓨터	-17.6	-4.1	-15.5	-14.5	-9.6	-10.9	-4.3
선박	13.2	-1.1	48.2	11.6	41.0	24.8	31.2
석유제품	50.6	35.3	54.3	47.9	2.2	32.8	20.2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7〉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중국	23.6	23.5	27.9	22.6	24.4	12.6	11.2	11.8	13.2	12.2	19.0
일본	9.5	12.6	14.0	7.3	10.7	11.6	9.2	13.3	7.8	10.4	-1.3
미국	10.7	-12.7	-6.0	-3.8	-3.5	0.0	10.7	9.0	-1.0	4.5	11.0
ASEAN	10.0	14.0	25.0	8.0	14.2	10.3	14.0	17.1	25.4	16.9	27.2
EU	19.9	12.2	18.9	11.8	15.4	8.6	17.6	15.4	10.1	12.8	13.3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수입

■ 원유 수입 감소 등에 의해 수입증가세 둔화

- 수입총액은 지난해 연간 18.4% 증가에 비해 둔화된 전년동기 대비 13.1%로 2006년 1/4분기 증가율 19.7%보다 낮은 수준
 - 일평균 수입금액: '06년 12월 12.2억 달러 ⇒ '07년 3월 12.4억 달러
 - 2006년 4/4분기와 비교하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
- 용도별로는 원자재 수입 증가세 둔화, 특히 원자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은 2007년 1/4분기 -3.0%의 감소세
 - 소비재 수입은 원화 강세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20%를 상회하는 증가세
 - 정밀기계 등의 기계류(전년동기 대비 20.8%)를 중심으로 2007년 1/4분기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12.9%를 보이며 예년 수준('06년 1/4분기 12.0%, 연간 11.7%) 소폭 상회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표 1-8> 용도별 수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총액	14.1	19.7	20.4	21.1	13.0	18.4	13.1
원자재	17.8	24.6	24.7	26.7	16.0	22.8	12.3
자본재	10.4	12.0	11.9	14.4	8.6	11.7	12.9
소비재	11.5	19.5	21.8	20.8	17.8	19.9	21.3

자료: 한국무역협회

(7) 경상수지

■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07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5.2억 달러
 - 2006년 2/4분기 이후 지속되던 흑자 기조에서 적자로 전환, 계절적 요인을 고려 하더라도 지난해 1/4분기 적자규모 11.2억 달러보다 확대
- 전년동기 대비 상품수지 흑자 확대 불구,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기인
 - 상품수지: '06년 1/4분기 52.2억 달러 ⇒ '07년 1/4분기 61.8억 달러
 - 서비스수지: '06년 1/4분기 -50.0억 달러 ⇒ '07년 1/4분기 -61.8억 달러
 -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6억 달러 확대되었고 사업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7.5억 달러 확대

〈표 1-9〉 최근 경상수지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경상수지	149.8	-11.2	6.9	3.7	61.4	60.9	-15.2
상품수지	326.8	52.2	74.1	62.3	103.5	292.1	61.8
서비스수지	-136.6	-50.0	-38.8	-53.8	-45.0	-187.6	-61.8
운수수지	37.3	3.0	5.8	7.4	8.5	24.6	4.0
여행수지	-96.0	-29.5	-28.4	-37.8	-33.4	-129.2	-36.1
금융서비스	14.2	4.4	5.6	4.2	5.2	19.4	5.7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26.5	-8.1	-5.6	-7.5	-3.6	-24.8	-8.2
사업서비스수지	-61.2	-15.1	-15.1	-18.5	-19.6	-68.3	-22.6
소득수지	-15.6	-4.8	-16.5	6.1	9.8	-5.4	-6.9
경상이전수지	-24.8	-8.6	-11.9	-10.8	-6.8	-38.2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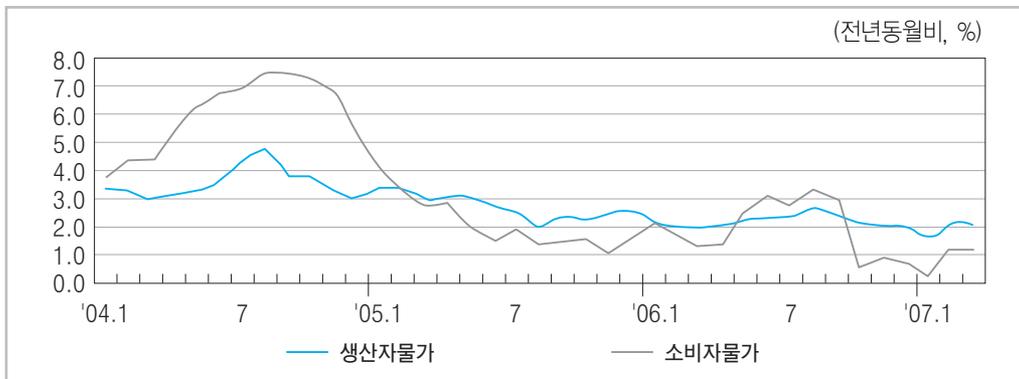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물가 및 임금

■ 소비자물가 안정세

- 2006년 2.2%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상품가격의 안정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
 -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가격의 안정으로 상품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0.7% 상승에 그침.
 - 그러나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가격은 2.8% 상승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 소폭 확대
 - 1.3%('06년 1분기) ⇒ 1.7%(2분기) ⇒ 2.1%(3분기) ⇒ 2.1%(4분기) ⇒ 2.2%('07년 1분기)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 2006년 3/4분기를 고점으로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 하락 지속
 - 1.7%('06년 1분기) ⇒ 2.4%(2분기) ⇒ 3.1%(3분기) ⇒ 2.0%(4분기) ⇒ 1.8%('07년 1분기)

■ 수입물가(원화기준), 소폭 상승

- 2006년 3/4분기부터 둔화 추세를 보이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4/4분기에는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7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2% 상승
 - 10%를 상회하던 달러기준 혹은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약 5% 초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이며 둔화

〈표 1 -10〉 물가 추이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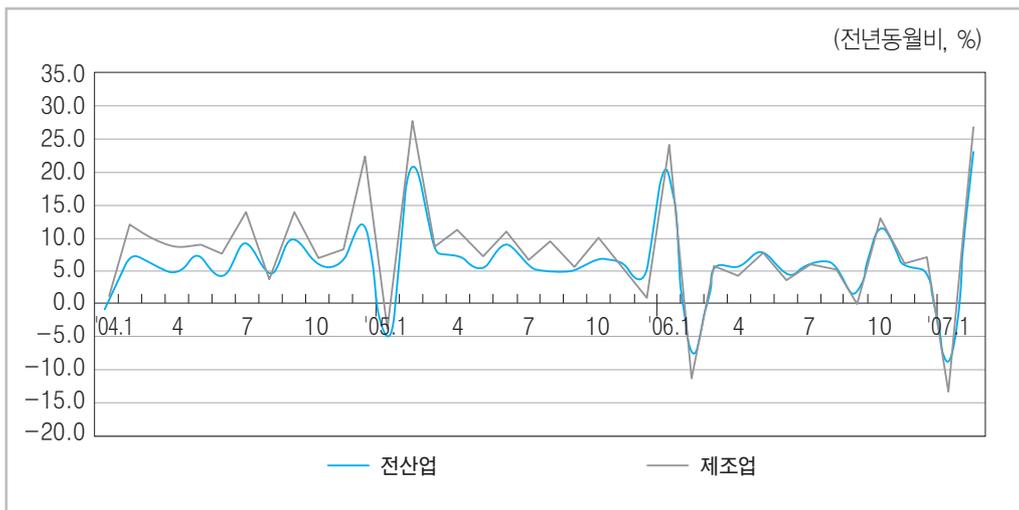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소비자물가	2.8	2.1	2.2	2.5	2.1	2.2	2.0	
상품	3.2	1.8	1.6	2.0	0.8	1.6	0.9	
농축수산물	1.9	-0.1	-2.1	0.7	1.0	-0.1	1.4	
공업제품	3.7	2.3	2.6	2.4	0.8	2.0	0.7	
서비스	2.4	2.2	2.7	2.9	3.0	2.7	2.8	
집세	-0.2	-0.2	0.2	0.5	1.1	0.4	1.6	
공공서비스	3.2	2.5	3.3	4.0	4.1	3.5	2.7	
개인서비스	3.0	2.9	3.1	3.1	2.9	3.0	3.1	
근원인플레이션	2.3	1.3	1.7	2.1	2.1	1.8	2.2	
생산자물가	2.2	1.7	2.4	3.1	2.0	2.3	1.8	
수입물가	원화기준	2.9	8.1	8.8	5.1	-0.4	5.3	1.2
	계약기준	15.2	14.7	16.2	13.6	9.7	13.5	5.2
	달러기준	15.0	13.0	15.4	13.3	10.1	12.9	5.4
가공단계별	원재료	18.0	22.4	19.0	9.5	1.5	12.5	-1.6
	중간재	0.9	1.6	3.5	4.8	1.9	3.0	3.2
	최종재	0.3	0.3	0.5	0.6	0.4	0.4	0.4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임금상승률 소폭 상승

- 2007년 1~2월 월평균 임금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6.1% 상승, 이는 지난해 5.6% 대의 전 산업 임금상승률을 소폭 상회
 - 올 1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8.3% 하락하였다가 2월에는 22.9% 상승, 이는 전년도와 설 명절 시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큰 폭의 특별급여 증감요인은 서로 상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8.2%의 높은 상승을 보인 반면 제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5.8% 수준
 -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상승률은 0.7%로 매우 저조하며, 운수업과 도매 및 소매업도 전 산업 임금상승률 6.1%를 하회

<그림 1-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자료: 통계청

〈표 I -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누계
전 산업	6.4	5.5	5.6	4.3	6.9	5.6	-8.3	22.9	6.1
제조업	7.8	4.9	5.0	3.5	8.5	5.6	-13.5	28.6	5.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2	1.6	4.9	-1.3	15.3	5.2	0.7	16.0	8.2
건설업	1.0	6.9	8.3	8.9	10.0	8.5	-5.1	20.5	6.9
도매 및 소매업	11.8	6.3	7.7	3.1	5.3	5.6	-4.2	15.7	5.2
숙박 및 음식점업	5.6	3.5	3.3	0.5	3.5	2.7	-11.7	14.8	0.7
운수업	8.9	4.3	3.4	1.4	4.3	3.3	-4.5	14.8	4.9
금융 및 보험업	5.7	12.1	10.0	5.6	8.1	8.9	-7.6	30.6	8.2
부동산 및 임대업	9.4	11.8	12.3	15.3	6.6	11.4	-2.6	16.5	6.8

자료: 통계청

■ 1~3월 중 부동산 가격 상승세 크게 둔화

- '06년 11.15대책과 '07년 1.11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4/4분기의 높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주택거래 급감과 함께 올해 1월 이후 크게 둔화되고 안정적 추세

〈표 I -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전기비, %)

	2006년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 국	0.3	0.5	0.6	0.9	1.0	0.5	0.2	0.2	0.5	1.3	3.1	1.9	0.9	0.4	0.2
서울강북(14개구)	0.2	0.3	0.5	0.7	0.7	0.6	0.4	0.3	0.7	1.5	4.1	3.8	2.0	0.6	0.6
서울강남(11개구)	1.0	1.2	1.8	2.3	2.2	0.8	0.3	0.2	0.9	0.2	5.4	2.2	1.1	0.2	0.2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양적·질적 고용지표 개선 미흡

- 1/4분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6.4만 명 증가한 수준이나 '06년 4/4분기보다 3.1만 명 감소한 수준
 - 1/4분기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한 반면, 중년층(30~49세) 취업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0.1%), 장년층(50세 이상) 일자리 창출은 6.2%나 증가, 이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시사
 - 취업시간대별로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는 6.4% 증가하였으나 36시간 이상의 취업자는 0.3% 증가에 그쳐, 이 또한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시사

〈표 1-13〉 취업자 추이

(천 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취업자수		22,856	22,577	23,409	23,314	23,303	23,151	22,841
전년동기비 증감		299	330	283	287	278	295	264
취업 시간대별	36시간 미만	8.7	-5.7	4.5	2.1	2.4	0.6	6.4
	36시간 이상	0.3	2.9	1.0	1.2	0.9	1.5	0.3
연령별	15~29세	-2.8	-4.0	-4.6	-3.8	-3.7	-4.0	-2.1
	30~49세	0.3	1.4	1.1	1.0	0.4	0.9	-0.1
	50세 이상	6.9	6.3	5.8	5.5	6.4	6.0	6.2

자료: 통계청

■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1/4분기 실업자는 85.2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작년 1/4분기에 비해 0.3%p 하락한 3.6% 시현
 - 1/4분기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6년 4/4분기(1/4분기)에 비해 0.3%p (0.8%p) 낮아진 7.6%를 기록하며 청년실업문제 소폭 개선
 - 2007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530.5만 명으로 전년동기 1,510.1만 명에 비해 1.35% 증가했고, 더욱이 최근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1/4분기 구직단념자가 12.9만 명으로 2006년 4/4분기(1/4분기)에 비해 약 4천 명(2천 명) 증가

〈표 1-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 명,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실업자	887	914	816	799	780	827	851
실업률	3.7	3.9	3.4	3.3	3.3	3.5	3.6
청년(15~29세)실업률	8.0	8.4	7.7	7.6	7.8	7.9	7.6
계절조정실업률	3.7	3.5	3.5	3.5	3.4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4,557	15,101	14,505	14,722	14,807	14,784	15,305
구직단념자	125	127	114	119	125	121	129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M2, 3월 들어서도 11% 중반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

- M2 증가율은 2007년 들어 11% 중반을 오르내리며 안정세를 유지
 -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통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3월에는 전월(11.5%)보다는 소폭 하락한 11%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M1 증가율은 3월 들어 통화편제 변경으로 인해 대폭 하락한 -5% 중반으로 추정
 - 미래가격제도 도입(2007. 3. 22.)으로 인해 M1 통계에서 개인MMF가 제외됨에 따라 3월 중 M1 증가율은 전월보다 대폭 하락한 -5% 중반으로 추정
-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2007년 들어 10%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평잔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연중	1/4	2/4	3/4	4/4	연중	1월	2월	3월
Lf ¹⁾	7.0	7.2	7.4	7.5	9.2	7.9	9.8	9.9 ^o	10 내외
M2 ²⁾	6.9	7.0	7.2	8.1	10.9	8.3	11.3	11.5	11 중반
M1 ³⁾	8.5	-0.6	-2.8	-5.5	5.9	-0.8	7.9	7.4	-5 중반
본원통화	4.1	7.2	7.9	6.1	8.4	7.4	15.8	18.8	19.4 ^p

-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2) '04년 4월 이후 시계열 조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편제대상 기관 및 상품 확대 반영)
 3) '05년 11월과 '07. 3월에 시계열 조정(미래가격제 도입에 따라 기존 M1에서 '05년 11월부터 법인MMF를, '07. 3월부터 개인MMF를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2) 금리

■ 하락하던 시장금리는 3월 말 이후 상승세 유지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불안,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 등으로 2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는 3월 말부터 상승세로 반전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및 주식시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국고채 및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최근 각각 5%대, 5.4%대까지 회복
- 작년 11월 23일 기준을 인상 발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던 단기금리는 2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 최근 콜금리 급등으로 상승
 - CD유통수익률은 4.94%대, CP유통수익률은 5.11%대를 약 2개월간 유지하다 4월 하순 이후 단기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콜금리가 급등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최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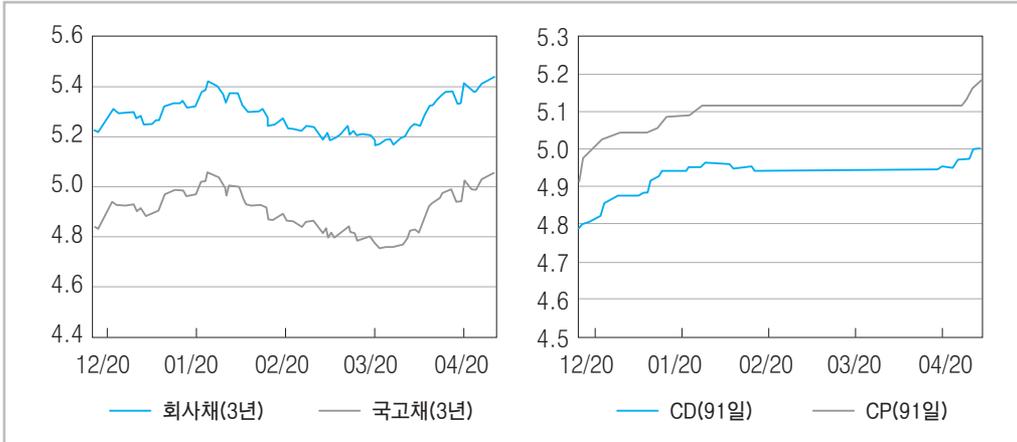
■ 최근 들어 콜금리가 5% 이상으로 급등하였으나 다시 4%대로 회복

- 3월 들어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그 결과 시중 단기자금 수요가 급등하여 콜금리도 급등
 - 4월 하순 들어 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목표치인 4.5%를 훨씬 상회하는 5.10%까지 한때 급등
- 정부의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어 콜금리는 다시 4%대로 (4.88%, 4월 30일) 회복

■ 장단기 금리 차 확대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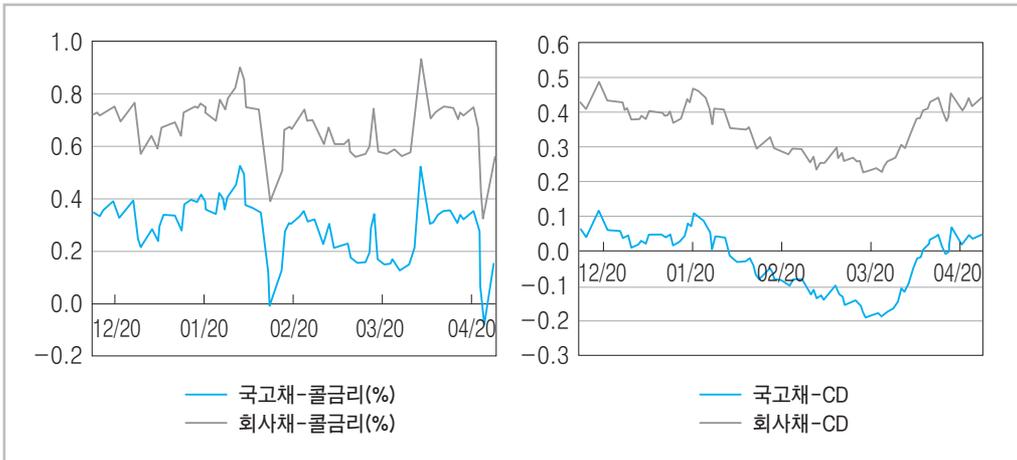
- 시장금리의 상승세 반전과 단기금리의 안정세 유지로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는 반면, 회사채가 국고채보다 유통수익률의 상승폭이 큼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축소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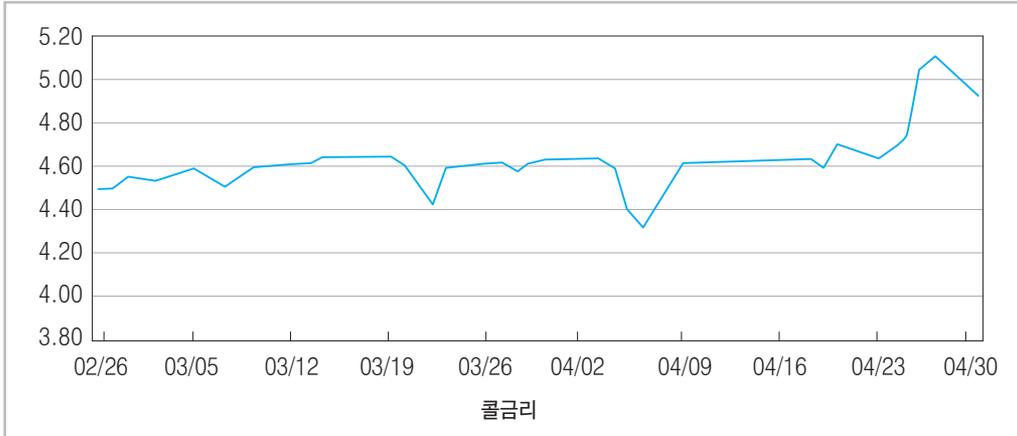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1> 최근 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2>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16〉 주요 금리 현황

(연리, %, 말일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콜금리(1일물)(A)	3.76	4.48	4.49	4.60	4.61	4.55	4.63	4.88	
CD유통수익률(91일)	4.09	4.58	4.67	4.86	4.96	4.94	4.94	5.00	
CP유통수익률(91일)	4.32	4.75	4.78	5.03	5.11	5.11	5.11	5.18	
국고채(3년)(B)	5.08	4.71	4.82	4.92	5.02	4.86	4.76	5.05	
회사채(3년, AA-)(C)	5.52	5.01	5.16	5.29	5.38	5.24	5.19	5.44	
B-A(%P)	1.32	0.23	0.33	0.32	0.41	0.31	0.13	0.17	
C-A(%P)	1.76	0.53	0.67	0.69	0.77	0.69	0.56	0.56	
C-B(%P)	0.44	0.30	0.34	0.37	0.36	0.38	0.43	0.3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상승세 정체, 대출 평균금리는 소폭 상승

- 2006년 12월 이후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 3월 들어 전월에 이어 4.79%를 기록하며 정체
 -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일부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및 우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 오다 특판예금 취급이 거의 종료되고 일부 은행 단기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3월 들어 전월에 비해 0.03%p 하락
 -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CD유통수익률 상승에 힘입어 3월 현재 4.86%로 전월보다 0.02%p 상승하며 상승세를 지속
- 2007년 3월 중 대출 평균금리는 6.37%로 전월에 비해 0.03%p 상승하였고 전년 말에 비해서는 0.18%p 상승한 상태
 - 기업대출금리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대출금리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상승해 오다 3월 들어 정체
 - 가계대출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들어 전월에 비해 0.07%p 상승

- 공공·기타대출금리는 작년 말 이후 상승하다 2월 들어 잠시 하락한 후 3월 들어 다시 전월에 비해 0.17%p 상승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연%, %p)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2월	12월	1월	2월	3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¹⁾	3.41	4.14	4.60	4.69	4.79	4.79	0.00
순수저축성예금	3.43	4.05	4.53	4.61	4.75	4.72	-0.03
시장형금융상품	3.35	4.27	4.66	4.77	4.84	4.86	0.02
대출 평균금리 ²⁾	5.52	5.74	6.19	6.32	6.34	6.37	0.03
기업대출	5.54	5.80	6.30	6.39	6.43	6.41	-0.02
(대기업)	5.28	5.24	5.88	5.85	5.86	5.84	-0.02
(중소기업)	5.62	5.92	6.40	6.49	6.53	6.53	0.00
가계대출	5.48	5.63	5.97	6.20	6.25	6.32	0.07
(주택담보대출)	5.41	5.60	5.88	6.11	6.18	6.20	0.02
(신용대출)	5.37	5.61	6.13	6.35	6.41	6.58	0.17
공공·기타대출	4.78	5.01	5.45	5.55	5.13	5.30	0.17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 중소기업 대출이 최근 2개월(2월, 3월)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도 크게 증가
 - 대기업 대출은 2월 중 증가로 돌아섰다가 3월 들어 다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 대출은 2월 4.7%, 3월 6.8%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대출 증가세를 주도
- 3월 들어 회사채 발행이 전월보다 61.6%나 크게 증가하였지만 만기도래분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순상환이 지속
 - 2007년 1~3월 기간 중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기보다 7.9% 증가하여 발행실적은 호조세
 - 3월 들어 주식 발행이 전월에 비해 81.6%나 크게 증가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호조세를 유지
 - 2007년 1~3월 기간 중 주식 발행은 전년동기에 비해 159.3%나 증가
 - CP는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의 CP 상환 증가로 순상환으로 전환

〈표 1-18〉 기업자금조달 추이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연중	연중	2월	3월	1월	2월	3월	3월 말 잔액
은행원화대출 ¹⁾	15.0	42.2	2.4	2.9	2.8	5.4	6.2	331.9
(대기업)	3.9	-1.3	-0.2	-1.0	-0.0	0.7	-0.6	27.4
(중소기업)	11.0	43.5	2.6	3.9	2.8	4.7	6.8	304.5
은행사모사채인수 ²⁾	5.4	16.6	1.2	1.5	0.7	-0.2	-0.3	31.1
회사채순발행 ³⁾	0.5	-2.9	-1.2	0.7	0.0	-0.2	-0.5	-
CP순발행 ⁴⁾	-0.5	2.8	0.2	-1.2	4.6	0.1	-0.3	19.7
주식발행	3.8	5.0	0.9	0.5	0.2	0.2	0.2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사 및 종금사 취급분 기준, 3월 25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표 I -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억 원, %)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7년	
			1~3월	1~3월	전년동기대비	2월	3월	전월대비
조달총액	548,664	481,775	107,768	145,315	34.8	30,024	49,223	63.9
주 식	67,633	64,993	19,201	49,785	159.3	3,474	6,309	81.6
회 사 채	481,031	416,782	88,567	95,530	7.9	26,550	42,914	61.6
(일 반)	221,552	171,595	36,870	50,841	37.9	16,540	17,034	3.0
(금융채)	91,250	105,800	26,000	23,700	-8.8	6,500	12,100	86.2
(A B S)	168,229	139,387	25,697	20,989	-18.3	3,510	13,780	292.6

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납입일 기준

2) 금융채(여전채, 중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는 2001년 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

- 가계대출은 3월 들어 0.7조 원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말은 물론이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작년 말 5조 원 이상의 증가세('06년 11월 5.6조 원, '06년 12월 5.0조 원)를 보이다 3월에는 0.7조 원 증가에 그침.
- 주택담보대출은 뚜렷한 증가세의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들어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 4.2조 원('06년 11월) ⇒ 3.2조 원('06년 12월) ⇒ 0.0조 원('07년 3월)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연초 계절적 요인(상여금 지급 등)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감소

<표 1-20> 은행의 가계대출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연중	연중	2월	3월	1월	2월	3월	3월 말 잔액
가계대출 ¹⁾	29.4	40.6	2.9	2.6	-0.2	1.9	0.7	348.0
(주택담보대출 ²⁾)	20.6	26.8	0.6	1.2	0.7	0.4	0.0	218.2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2.3	1.5	-1.0	1.5	0.7	128.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가계신용 잔액 증가폭은 2006년 중 확대

- 2006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581조9,635억 원으로 연간 60조4,676억 원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
 - 가계신용 증가폭: 8조5077억 원('03년) ⇒ 27조948억 원('04년) ⇒ 46조8,336억 원('05년) ⇒ 60조4,676억 원('06년)
 - 신용카드 대란 이후 크게 둔화되었던 가계신용 잔액이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표 I -21〉 가계신용 추이

(십억 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말	12월 말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가계신용잔액 (A+B)	447,567.5 (1.9) [8,507.7]	474,662.3 (6.1) [27,094.8]	521,495.9 (9.9) [46,833.6]	528,767.2 (10.7)	545,495.9 (10.4)	558,817.6 (10.4)	581,963.5 (11.6)
				[60,467.6]			
				<7,271.3>	<16,728.7>	<13,321.7>	<23,145.9>
가계대출잔액 (A)	420,938.3 (7.6) [29,818.9]	449,398.2 (6.8) [28,459.9]	493,468.7 (9.8) [44,070.5]	500,845.5 (10.5)	516,661.6 (10.2)	529,452.7 (10.2)	550,431.3 (11.5)
				[56,962.6]			
				<7,376.8>	<15,816.1>	<12,791.1>	<20,978.6>
판매신용잔액 (B)	26,629.2 (-44.5) [-21,311.3]	25,264.1 (-5.1) [-1,365.1]	28,027.3 (10.9) [2,763.2]	27,921.8 (13.5)	28,834.4 (13.9)	29,365.0 (15.1)	31,532.2 (12.5)
				[3,504.9]			
				<-105.5>	<912.6>	<530.6>	<2,167.2>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분기말 대비 증감액, [] 안은 연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 가계대출의 확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하여 2007년 3월 2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278.3조 원) 04년 말에 비해 29.6% 증가한 상태
 -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거의 80%를 차지
- 개선 조짐을 보이던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최근 다시 악화되는 추세
 -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137.0%(’04년) ⇒ 144.9%(’05년) ⇒ 152.2%(’06년)
 - 가계부채/GDP: 75.1%(’04년) ⇒ 79.8%(’05년) ⇒ 84.7%(’06년)
 - 가계부채/금융자산: 47.1%(’04년) ⇒ 46.0%(’05년) ⇒ 47.1%(’06년)
-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며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은행권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는 약 50%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미국의 86.5%, 영국은 90%
 - 금융권의 영업상황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손실대응능력도 양호한 편이며 주택

- 담보대출 연체율도 0.9%(금융산업 평균)의 낮은 수준
 • 2007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

〈표 1 -2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조 원, %)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 3. 28.	2004년 말 대비 증가액(율)
은행	169.9 <79.1>	190.2 <79.0>	217.0 <78.8>	218.2 <78.4>	48.3(28.4%)
보험	12.2 <5.7>	13.6 <5.6>	14.3 <5.2>	14.9 <5.3>	2.7(22.2%)
비은행 ¹⁾	32.7 <15.2>	37.0 <15.4>	44.2 <16.0>	45.2 <16.3>	12.6(38.4%)
계	214.7 <100.0>	240.7 <100.0>	275.5 <100.0>	278.3 <100.0>	63.5(29.6%)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단, 신협은 '06년 이후부터 포함), 새마을금고, 여전사

2) < >안은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표 1 -23〉 가계 재무비율 추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138.0	138.9	137.0	144.9	152.2
가계부채/GDP	78.2	77.4	75.1	79.8	84.7
가계부채/금융자산	49.3	48.0	47.1	46.0	47.1

주: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 부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삼성경제연구소, 2007. 4)에서 재인용

(4) 자금흐름 동향

■ 금융기관 수신고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 유지

- 금융기관 수신고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월 들어 은행 수신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증가세를 주도
 - 은행 수신고는 3월 6.9조 원이 증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수신고의 증가폭을 압도(자산운용사 3.4조 원, 증권사 2.3조 원, 종금사 2.1조 원)
 - 특히 법인세 납부 및 대출 결제의 이월 등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은행채 발행도 대출 자원 마련 및 CD 만기상환자금 선확보 등으로 크게 증가
-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3월 들어 주식형펀드 및 재간접펀드를 중심으로 한 신종펀드 수신고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자금 이탈로 MMF 수신고도 2개월 연속 감소
- 증권사 수신고는 RP 수신고의 증가에 힘입어 3월에는 전월에 비해 2.3조 원 증가
 - 3월 고객예탁금의 증가(0.1조 원)는 그리 크지 않으나 개인MMF 이탈자금이 RP로 유입되면서 RP 수신고가 전월에 비해 2.2조 원이나 증가
- 종금사 수신고는 3월 들어 CMA 수신고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발행어음 및 CP 수신고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증가세 유지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유지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3월 들어 소폭 하락(2월 51.3% ⇒ 3월 51.1%)하였으나 51%대 초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시현

〈표 1-24〉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연중	2006 연중	2007			07.3월 말 잔액
			1월	2월	3월	
은행 수신 ¹⁾	36.0	41.5	-8.3	4.6	6.9	654.6
실세요구불예금	8.4	4.2	-5.6	1.5	0.7	56.3
수시입출식	22.0	10.8	-13.5	0.0	5.0	170.9
정기예금	-8.0	16.5	-0.1	2.8	0.2	265.7
단기시장성	20.2	15.7	11.1	0.9	1.5	113.4
은행채	8.2	31.6	2.8	1.6	3.9	116.7
자산운용사 수신 ²⁾	17.3	30.3	3.4	0.4	3.4	241.9
MMF	5.0	-7.7	1.4	-0.4	-0.8	57.3
주식형	17.6	20.3	3.4	-0.2	2.1	51.7
채권형	-24.5	-1.0	-2.4	-2.0	-0.4	45.7
혼합형	7.9	5.6	-0.5	-0.5	-0.7	46.3
신종펀드	11.2	13.1	1.6	3.6	3.3	41.0
증권사 수신	6.5	8.0	0.5	1.1	2.3	31.7
고객 예탁금	3.8	-3.5	0.1	1.2	0.1	9.8
RP	2.7	11.5	0.4	-0.1	2.2	21.9
종금사 수신	5.9	10.1	3.9	0.5	2.1	39.8
발행어음	1.1	6.0	1.3	0.4	1.3	16.3
CMA	0.9	0.8	0.3	0.3	-0.2	4.1
어음매출(CP)	3.9	3.3	2.3	-0.2	1.0	19.4

주: 1) 은행채 제외

2)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표 I -25〉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¹⁾ 비중

(%, 조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12월	12월	1월	2월	3월	'07년 3월 평균잔액
단기수신 비중	49.5	51.8	51.1	51.3	51.3	51.1	473.3
장기수신 비중	50.5	48.2	48.9	48.7	48.7	48.9	45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6.5

주: 1) 단기수신: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종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수신의 평균잔액 기준(요구 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MMF, 단기채권형펀드, CMA, 자발어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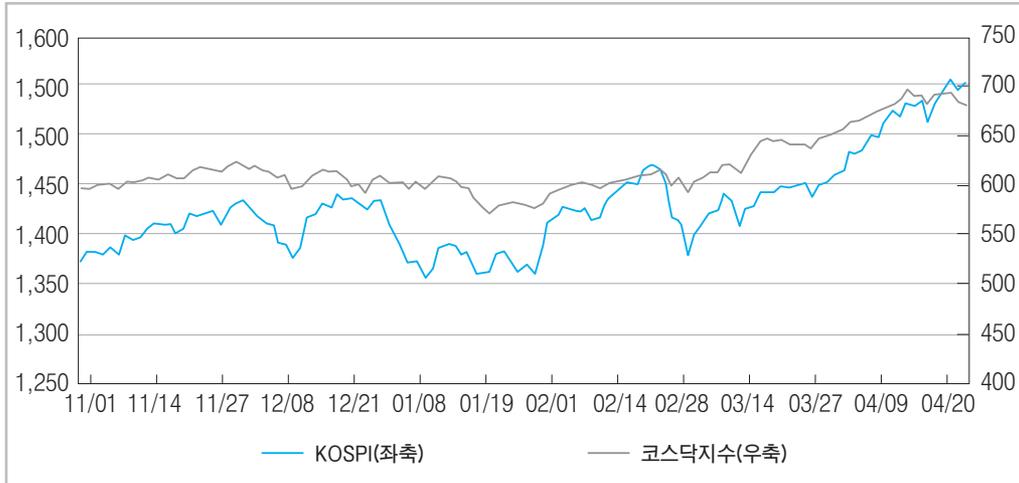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5) 주식시장

■ 주가지수는 3월 이후 상승세 지속

- 코스피지수는 2월 말 중국의 금융시장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
 - 2월 말 일시적 급락 이후 글로벌 증시의 호전, 내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코스피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여 상승세 시현
- 코스닥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실적전망이 양호한 IT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 코스닥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유가증권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

〈그림 1-1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6〉 주식시장 주요지표

(조 원, %, 말일기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종합주가지수(KOSPI)	895.9	1,379.4	1,432.2	1,434.5	1,360.2	1,417.3	1,452.6	1,542.24
거래대금(평균)	2.2	3.2	3.0	2.8	2.6	3.4	3.1	4.5
시가총액	412.59	655.07	703.3	704.6	668.6	696.0	713.8	757.3
연월 중 외국인순매수	+10.49	-3.02	-1.60	+1.01	+0.05	+1.25	-1.09	+2.742
코스닥지수(KOSDAQ)	380.33	701.79	622.17	606.15	576.37	600.93	648.99	675.88
거래대금(평균)	0.6	1.8	1.7	1.9	1.8	1.8	2.1	2.3
시가총액	31.1	70.9	73.1	72.1	69.5	73.0	79.6	84.1
연월 중 외국인순매수	+0.165	+0.64	+0.04	+0.02	+0.09	+0.26	+0.20	-0.125
고객예탁금	8.1	11.9	9.4	8.4	8.5	9.7	9.9	11.4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초강세를 보인 후 연초의 상승세가 3월까지 지속되다가 하락 추세를 보임.

- 4월 말 환율은 929원으로 3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 반전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외환수급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일부 은행들의 거래량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래가격 범위가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함.
-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공급 확대, 미국의 재정적자 등 달러 약세요인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배당금을 포함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의 달러 강세 요인과 겹치면서, 외환시장은 혼조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3월 초 중국 증시의 급락과 미국 모기지시장의 부실 등으로 최고 950원(3월 6일)까지 오름.
 - 그러나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매입이 매도로 전환되고,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지표경기 개선으로 원/달러 환율은 3월 초를 정점으로 최근 하락 추세
- 1/4분기 중 연준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동결했으나, 최근 불안정한 경가지표 양상과 무역적자의 감소로 향후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 연방기금금리는 2006년 6월 29일 회의에서 인상된 후 6차례 연속 동결
 - 3월 FOMC 성명서에서 “추가긴축”을 “향후 정책조정”으로 대체
 - 미국의 무역적자는 1월 612억 달러에서 3월 9일 591억 달러로 감소

〈표 1-27〉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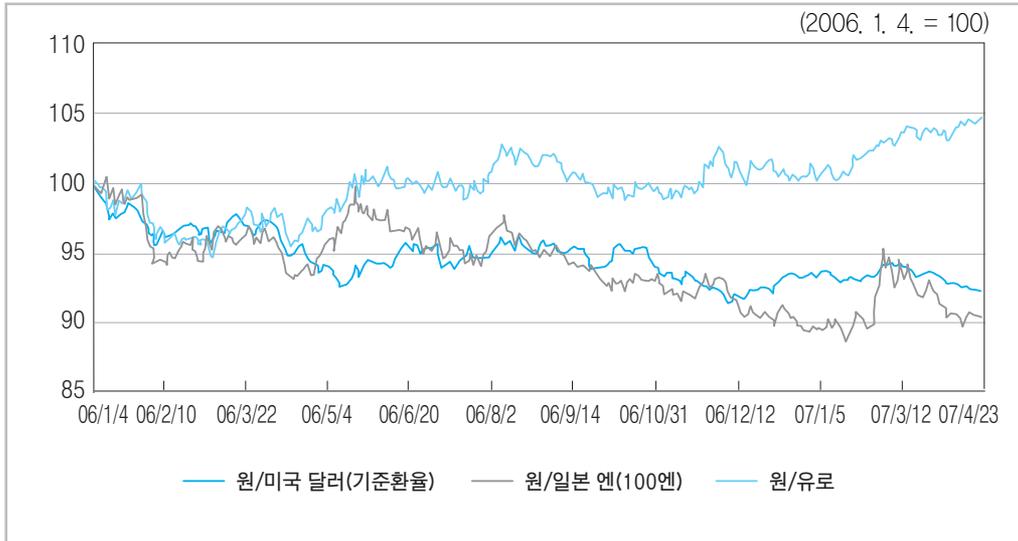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1~25일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55.5	936.4	937.0	943.3	932.0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7	-7.2	-6.2	-6.9	-6.8	-8.6	-9.6	-6.7	1.2	1.2	1.9	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엔 환율은 2월 말 이후 상승했으나 4월 말 현재 연초(781.5원) 수준을 회복(778.3원)

- 연초 소비와 물가지수의 불안정으로 일본 콜금리는 0.25%로 동결
- 그러나 2006년 4/4분기 GDP성장률의 호조에 따라 2월 28일 0.5%로 인상되면서 3월 중 엔화 강세를 유도
 - 이는 지난해 7월 제로금리 해제 이후 7개월만의 금리인상 결정
 - 후쿠이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경제가 앞으로도 경기확대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무토 일본은행 부총재는 단계적 금리인상을 언급
 - 엔화 대비 달러는 2월 말까지 양국 경기지표의 불안정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일본 4/4분기 성장률의 호조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2월 23일 급락
 - 3월 이후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의 약화, 미국 경기지표의 개선 등으로 엔/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추세에 있음.
- 원/유로 환율은 유럽의 경제회복과 ECB의 금리인상으로 상승기조 유지
 - ECB 정책위원들은 월간보고서에서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적(2월 21일)
 - ECB는 3월 8일 금리를 3.5%에서 3.75%로 인상
 - ECB는 4월 12일 발표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으나, 6월 금리인상 기대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경기지표의 부진 등 달러 약세요인과 유로지역의 견고한 경제회복으로 인한 유로 강세요인이 결합되면서 달러/유로 환율은 1/4분기 상승 추세

〈그림 I -14〉 주요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 지난 3년간 지속되던 자본수지 흑자 추세가 2월 중 잠시 순유출을 보였으나 3월 중 기타 투자수지가 대폭 늘어 31.6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임.

– 2월 중 4.2억 달러의 순유출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2006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함.

- 2007년 1~2월간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ECB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확대
- 외국인 증권투자는 2006년 4/4분기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2월 현재 44.1억 달러를 기록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2007년 1월 29.7억 달러로 크게 떨어졌다가 2월 들어 5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6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

– 2006년 4/4분기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의 확산 등으로 해외단기차입이 크

계 감소했으나 2007년 1/4분기에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 증가 등으로 3월 중 기타투자수지는 104.5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임.

- 외국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였으나, 4월 중 정부의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유동성이 완화됨.

- 실세 콜금리(5.10%)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2007년 4월 27일)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시장의 과잉반응”이라고 평가
- 정부의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콜금리는 다시 4%대로(4.88%, 4월 30일) 회복

〈표 I -28〉 자본 유출입 추이¹⁾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²⁾	1/4
자본수지	47.6	36.8	47.7	36.4	186.2	30.3	-4.2	31.6	48.3
직접투자수지	20.1	7.8	-36.6	7.0	-34.8	-2.1	-6.9	-0.6	-9.6
(내국인해외투자)	-43.0	-14.5	-20.8	-21.6	-71.3	-5.5	-9.6	-5.5	-20.7
(외국인국내투자)	63.1	22.3	-15.8	28.6	36.5	3.5	2.7	4.9	11.1
증권투자수지	-17.3	-141.8	-74.0	-24.1	-225.4	-4.5	-17.7	-69.7	-101.5
내국인증권투자	-106.8	-79.6	-36.8	-54.0	-225.8	-29.7	-61.8	-48.4	-149.4
(주 식)	-36.9	-48.8	-9.0	-60.8	-152.0	-31.0	-55.2	-43.1	-130
(채 권)	-70.0	-30.9	-27.7	6.8	-73.8	1.23	-6.5	-5.2	-19.4
외국인증권투자	90.0	-62.1	-37.2	29.9	0.33	25.2	44.1	-21.4	47.9
(주 식)	32.8	-66.4	-60.3	-11.7	-84.2	1.28	19.4	-25	-4.3
(채 권)	56.6	4.2	23.1	41.6	84.5	23.9	24.7	3.6	52.2
기타투자수지	68.1	178.8	164.8	62.4	476.8	40.5	22.6	104.5	197.6
내국인기타투자	-26.6	-29.4	-15.6	-30.6	-87.6	-3.9	-10.6	1.1	-13.4
(대 출)	2.5	-1.9	-5.4	-14.4	-9.4	4.4	-9.9	-0.9	-6.4
외국인기타투자	94.7	208.2	180.4	93.0	564.4	44.4	33.1	103.5	181
(차 입)	10.2	190.6	126.2	37.7	433.6	33.6	28.0	81	142.5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23.4	-8.0	-6.5	-8.9	-30.3	-3.6	-2.0	-2.6	-8.1
자본이전수지	-23.4	-8.0	-6.5	-8.7	-29.7	-2.9	-1.9	-2.4	-7.3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0.005	0.002	-0.065	-0.21	-0.7	-0.6	-0.1	-0.1	-0.8

주: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둔화 등 실물지표 부진
 - 2007년 1/4사분기 성장률이 1.3%에 그침.
 - 산업생산 증가율도 2007년 1~3월간 평균 0.1%에 그쳐 작년 4/4분기(3.5%)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
 - 실업률은 2007년 들어 매달 0.1% 감소하는 완만한 개선을 보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1.9%에 이어 1~3월간 평균 2.4% 상승
 - 2007년 들어 에너지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월 2.1%, 2월 2.4%, 3월 2.8%로 상승세 지속
- 소비자신뢰지수로 볼 때 소비는 2007년 1/4분기에 호조세

〈표 1-29〉 미국의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실질GDP ¹⁾	3.2	5.6	2.6	2.0	2.5	3.3	-	-	-	1.3
산업생산 ²⁾	3.2	5.0	4.2	5.1	3.5	4.0	-0.4	0.8	-0.2	-
소비자물가	3.4	0.6	1.2	3.3	1.9	3.2	2.1	2.4	2.8	-
실업률(%)	5.1	4.7	4.6	4.7	4.5	4.6	4.6	4.5	4.4	4.5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5.6	106.6	103.9	106.8	105.9	110.2	112.5	107.2	110.0
무역수지(억 달러)	-7,828	-2,079	-2,106	-2,186	-1,980	-8,360	-651	-645	-	-

주: 1) 전기비 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년=100)

자료: 한국은행, 미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 4/4분기 성장률 5.5%로 강한 회복세
 - 2006년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세는 올해 2월 들어 둔화됨.
 -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회복세 지속
- 2007년 1~2월간 광공업 생산이 각각 4.4%, 3.1%의 증가율을 보여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부진하지만, 실업률은 4.0% 유지
- 소비자물가는 4/4분기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
 - 2007년 2월 소비자물가는 -0.2%를 기록

〈표 I -30〉 일본의 경제지표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실질GDP ¹⁾	1.9	2.9	1.3	0.5	5.5	2.2	-	-	-
광공업생산	1.1	3.2	4.7	5.6	5.9	4.8	4.4	3.1	-
소비자물가	-0.3	-0.1	0.2	0.6	0.3	0.3	0.0	-0.2	-
실업률(%)	4.4	4.2	4.1	4.1	4.0	4.1	4.0	4.0	-
수출	7.3	17.6	14.7	15.7	11.2	14.6	19.0	9.7	-

주: 1) 전기비 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경제: 회복세 둔화, 물가상승 압력

- 4/4분기 이후 산업생산은 1월 초 다소 둔화 조짐을 보임.
 - 산업생산은 2006년 4/4분기 0.5% 증가 후 1월 0.5% 감소로 반전했다가 2월 0.5% 증가로 회복

- 반면 실업률과 경기체감지수는 지속적인 개선 추세
 - 실업률은 2006년 4사분기에 7.6%를 기록한 후 2007년 1~2월간 각각 7.4%, 7.3%로 하락
 - 경기체감지수(ESI)의 상승세는 이어져 2007년 들어 1~2월에는 각각 109.2, 109.7을 기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국제유가는 불안정하나 유로의 강세가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

〈표 1 -31〉 EU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실질GDP	1.4	0.8	1.0	0.6	0.9	2.7	-	-	-
산업생산	1.3	0.3	0.5	0.1	0.5	4.0	-0.5	0.5	-
소비자물가 ¹⁾	2.2	2.3	2.5	2.1	1.8	2.2	1.8	1.8	1.9
실업률(%)	8.6	8.1	7.9	7.8	7.6	7.8	7.4	7.3	-
경기체감지수 ²⁾	98.4	103.0	107.2	108.6	110.3	107.3	109.2	109.7	
수출 ¹⁾	7.4	16.5	9.5	7.8	11.6	11.1	11.8	10.3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긴축정책 가능성 확대

-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성장세를 지속
 - 2007년 1/4분기 성장률은 11.1%, 동 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3%
 - 산업생산은 2007년 1/4분기 성장률이 18.3%로 2006년(16.6%)보다 높은 수준
 - 1/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3%
 - 높은 수출증가율에 기인한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

- 경기의 과열로 물가상승 우려가 심화됨.
 - 통화(M2)증가율은 2007년 1~3월 들어 평균 17% 증가하여 작년의 증가세 유지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006년 4사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 유동성 과잉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중국인민은행은 4차례의 기준을 인상과 1차례의 금리인상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 큰 효과가 없음.
 -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초과기준을 보유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확대, 중국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 등 유동성 과잉요인은 현존하고 있음.
 - 더불어 실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염려한 중국 통화당국의 미조정식 긴축정책 선호로 인해 긴축정책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계속되는 경기과열이나 2007년 2월 인플레이션 3% 이내 억제를 천명한 중국통화당국의 태도로 볼 때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 기대
 - 그러나 이번 가을의 중국공산당 대표회의, 내년의 올림픽 개최 등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긴축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I -32〉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실질GDP	9.9	10.3	11.3	10.6	10.4	10.7	-	-	-	11.1
산업생산	16.4	19.0	18.0	16.2	14.8	16.6	-	12.6	17.6	18.3
소비자물가	1.8	1.2	1.4	1.3	2.0	1.5	2.2	2.7	3.3	-
M2	17.6	18.9	18.5	17.7	16.9	16.9	15.9	17.8	17.3	-
고정자산투자 ¹⁾	27.2	29.8	31.3	28.2	24.5	24.5	-	23.4	25.3	25.3
무역수지(억 달러)	1,019	232	380	487	678	1,775	159	238	68	-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작년 10월까지 급락하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 추세로 반전
 - 중동정정 안정으로 수급차질 우려 완화 및 세계경기 둔화 예상에 따른 수요 약세로 9월 국제유가 급락 후 10월에도 급락세 지속
 - 금선물지수 10월 말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상승 추세
- 2007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1월 중 OPEC의 감산 가능성과 수요의 감소로 하락했던 유가는 1월 말 미 동북부의 한파예보, OPEC의 2월 감산 임박으로 상승 기조를 탄 후, 이란발 중동정세 불안정과 나이지리아 석유노조의 파업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임.
 - OPEC은 2006년 12월 나이지리아 총회에서 금년 2월 1일부터 추가 감산을 결정
 - 두바이유는 3월 31일 기준 64.10달러까지 상승
 - CRB 선물가격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상승 반전하여 3월 말 316.88을 기록
 - 금선물지수도 보합세에서 벗어나 3월 말 664로 급등

〈표 1-33〉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달러/배럴, 1967년=100)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유가현물(Dubai)	53.16	67.43	67.45	66.26	57.72	54.55	58.57	56.48	52.89	57.69	64.10
CRB선물지수 ¹⁾	331.83	346.39	349.83	329.02	305.58	305.87	321.53	307.26	301.22	312.39	316.88
금선물	517.00	615.85	636.74	627.30	598.30	606.60	648.00	636.70	653.20	669.35	663.79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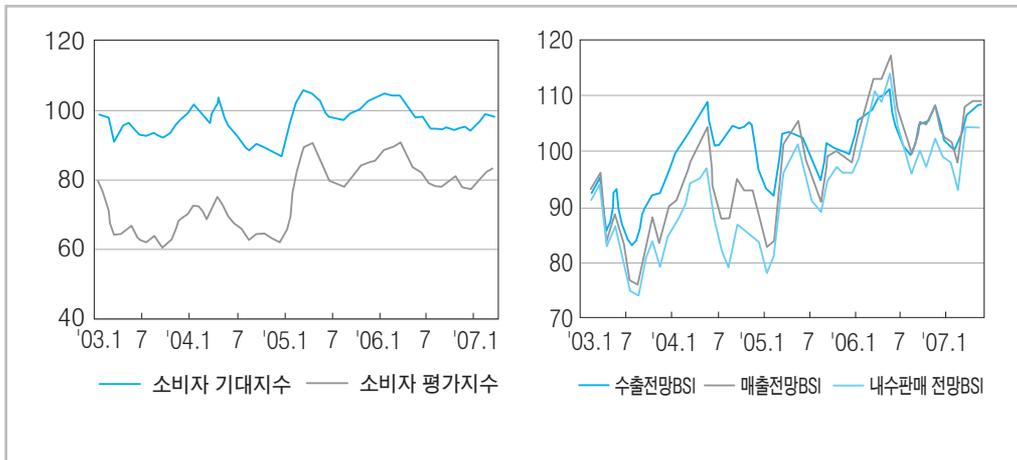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소비심리 개선 미흡하나 기업 전망 개선으로 경제심리 회복 조짐

- 소비자 기대지수는 금년 들어 지난 2년 추세에 비해 개선조짐이 미약
 -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는 크게 보아 2005년 이후 추세에 가까이 머물고 있음.(<그림 I-15>)
 - 하지만 2007년 들어 95 이하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 수준보다 개선되는 모습
- 기업들의 기대지수는 2006년 이후 긍정적 기대가 가시화됨.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전망 BSI는 2006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 판단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I-16>)
 - 특히 2007년 들어 수출 및 내수 부문 모두 상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I-15> 소비자 기대지수

<그림 I-16> 기업 전망 BSI



자료: 통계청

- 금년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내구재판매 증가는 소비자 기대지수와는 별도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
 - 아직 고용상황과 가계소득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심리 개선이 더 뚜렷해질 것인가 판단하기에는 이롭.

 - 2006년 이후 기업 설비투자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업 기대지수 개선을 뒷받침함.
- 실물지표 호조지속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회복국면 진입
-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심리 안정으로 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수의 성장기여도 증가, 수출호조세 지속, 재고/출하 비율 하락과 같은 경제지표 개선
 - 북핵문제 해결 전망 개선, 한·미 FTA의 순조로운 타결 등 경제외적 요인의 개선

제II장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국내경제전망
3. 위협요인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주택시장과 자동차산업 부진 등에 의해 미국의 성장세가 약해지고, 유로지역과 중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200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그동안 누적된 금리인상의 영향과 주택경기의 하강 우려,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으로 작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성장세의 둔화가 2007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긴축정책으로 조절
 - 지준율 인상 등 과열경기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 지속
 - 향후 추가 긴축정책이 예상되나 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력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일본경제, 경기회복으로 성숙기에 접어들 전망
 - 내수에 의한 자체적인 성장이 기업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도 계속될 전망
- 유로지역경제, 견고한 경제 회복기로
 -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도 회복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몇 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9	5.4	4.9	2.5 ²⁾
미국	3.2	3.3	2.2	2.4
일본	1.9	2.2	2.3	2.0
유로	1.4	2.6	2.3	2.2
중국	9.2	9.2	10.0	10.3

주: 1) 2005~2006년은 IMF 통계임.

2)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7.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06.

3)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April 2007.

■국제유가: OPEC 감산 및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측면의 유가 강세요인과 수요증가세의 둔화 및 비OPEC 원유생산 증가 등 유가 하락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2007년도 국제유가는 6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유가급락 우려에 따른 OPEC 감산 지속 및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전망
 - 11월에 시작된 OPEC 감산 및 그에 따른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립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과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및 비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2006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러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등 비OPEC국가의 원유생산 증가 전망
- OPEC 감산과 계절적 요인으로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가격 64.10달러,

5월 3일 현재)는 2007년에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의 상반된 작용으로 배럴당 6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국제금융시장, 고금리 및 달러 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인플레이 우려, 과잉유동성 해소 등을 위해 금리인상 추세
 - 미국 연방기금금리: 5.25%('07년 4월 현재), 인상 없음.
 - 일본 콜금리 목표: 0.25%('06년 12월) ⇒ 0.5%('07년 4월 현재), 1차례 인상
 - ECB 정책금리: 3.25%('06년 12월) ⇒ 3.75%('07년 4월), 1차례 인상
 - 중국 기준율: 9.0%('06년 12월) ⇒ 11.0%('07년 4월), 4차례 인상
 - 한국 콜금리 목표: 4.50%('07년 4월), 인상 없음.
- 달러화, 미-EU, 미-일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 외환다변화 등으로 약세기조 전망

(2) 대내여건

■대통령 선거

- 집권 말 레임덕현상과 함께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논리의 우위 등에 따른 정책혼선, 집단 간 갈등 표출에 따른 사회혼란, 이완된 분위기 속의 도덕적 해이 초래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
 -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를 중심으로 전후 2년의 분기별 성장률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본 결과, 대통령 선거 전해와 당해 년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 대통령 선거와 성장률의 변동

	2년 전	1년 전	당해 년	1년 후	2년 후
연 도	1985, 1990, 1995, 2000	1986, 1990, 1996, 2001	1987, 1992, 1997, 2002	1988, 1990, 1998, 2003	1989, 1994, 1999, 2004
분 산	13.0	57.7	41.4	25.2	30.7

주: 매년 4/4분기의 성장률을 100으로 환산한 후 표준편차를 구함.

- 올해에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지만 경제정책 표류, 사회혼란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는 경기흐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었음.
 - 즉 대선 3분기 전 시점을 기준¹⁾으로 볼 때, 상승국면이었던 경기가 대선으로 인해 하강기로 바뀌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없었음.
 - '92년 대선 당시 성장률은 '92년 1분기 이미 하락세로 진입한 상태이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음. 또한 2002년 대선 당시 2002년 1/4분기 성장률의 상승국면은 지속되었음.

〈표 II-3〉 성장률과 대통령 선거

(전년동기비, %)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8분기 전	7.3	6.9	7.7	4.3	5.5
7분기 전	9.2	9.6	7.4	3.5	6.3
6분기 전	10.5	10.4	7.2	3.7	5.1
5분기 전	12.4	8.8	6.6	3.4	4.9
4분기 전	10.3	8.9	6.9	4.6	4.0
3분기 전	13.1	8.2	4.9	6.5	4.0
2분기 전	12.5	7.0	6.1	7.0	
1분기 전	10.7	4.4	5.1	6.8	
당 분기	8.9	4.3	2.8	7.5	
1분기 후	14.3	4.5	-5.3	3.8	
3분기 전 성장률	정점	하락 추세	저점 외환위기	상승 추세	회복세

1) 현재 2007년 1/4분기는 대선이 포함된 4/4분기의 3분기 전에 해당됨.

■ 한·미 FTA 협상 타결

- 한·미 FTA 협상 체결은 국가신용도의 상승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는 실질GDP를 매년 약 0.6%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표 II-4〉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교역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GDP	0.32(0.03)	1.28(0.13)	6.0(0.6)
후생수준(% , GDP 대비)	0.24	0.56	2.9

주: () 안은 10년간 연평균 효과, 후생수준은 2005년 GDP 대비

자료: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4. 30.

■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부담 증가, 가계부채의 급증 등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승 등²⁾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민간구매력 저하가 예상된다.
 - 특히 종부세 징수액의 경우, 지난해 1조7,179억 원에서 올해에는 2조8,814억 원으로 67.7% 증가할 전망

2) • 2006. 1. 1. 기준 공시가격 대비 2007. 1. 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

• 표준지 토지(전국 평균 12.4%, 서울 15.43%, 경기 13.68%)

• 공동주택(잠정치: 전국 평균 24.0%, 서울 29.3%, 경기 31.4%)

• 과표적용률 상승

• 주택, 종합합산 토지: '06년 70% ⇒ '07년 80%

• 별도합산 토지: '06년 55% ⇒ '07년 60%

〈표 II -5〉 2007년 증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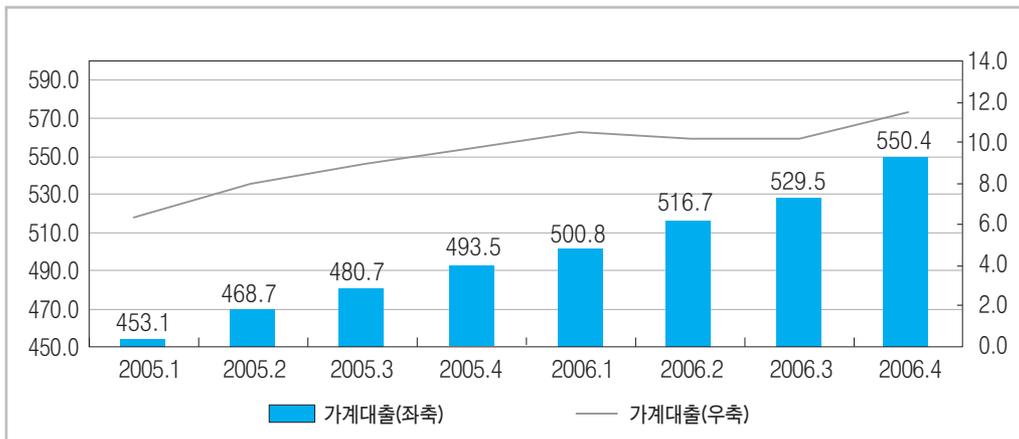
	2006년 신고실적(A)	2007년 전망(B)	차이(B-A)	증가율(B-A)/A
인원(천 명)	341	505	164	48.1
세액(억 원)	17,179	28,814	11,635	67.7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07. 3. 15.

-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금융기관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2005년 4/4분기 이후 10%대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간 소비 회복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05~2006년 중 가계부채는 약 100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연평균 9.5%로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 4.4%를 2배 이상 상회
 -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가계대출 연체율: 2004년 2.4%, 2005년 2.1%, 2006년 4사분기 1.5%)
 - 하지만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이 CD 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이어서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 -1〉 가계대출 추이

(조 원, 전년동기비%)



■ 북핵문제

-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로 북핵 사태가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핵 관련 불확실성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
 -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등 북핵 관련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
 - 이 외에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일본 납북자 문제, 북한 지원 부담 문제 등은 2.13 합의 이행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변수

2.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점차 확대되겠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지난해 4/4분기~올 1/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
 - 올 1/4분기 전기비 성장률(0.9%)이 지난해 4/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바닥을 다지고 있어 2/4분기부터는 경기하강 국면을 탈출(bottom-out)할 것으로 기대됨.
 - 더구나 지난해 성장률이 상고하저의 사이클을 보였다는 점도 올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여
 - 또한 복핵 리스크와 고유가의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경기회복세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성장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전망
 -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이고 중국경제의 수입수요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 내수부문의 경우도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가계부채 증가, 고용증가세 미흡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주요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완만한 회복세
 - 국제유가 하락, 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그리고 고용증가세 미흡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7%대의 높은 증가세
 - 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투자압력(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5년 4분기 이후 연속 6분기 80%대를 지속)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우려 등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 건설투자: 미약한 회복세

- 기업도시, 민자사업 등 공공건설 투자확대 계획,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전망
- 하지만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06년 현재 미분양 주택수는 7만3,772호로 '9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만8,97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만809건에 비해 29.0% 정도 감소

〈그림 II-2〉 미분양 아파트 추이



자료: 건설교통부

〈표 II-6〉 미분양 아파트 추이

(건수(계약기준), %)

	2006년	2007년		
	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국	40,809	33,749	28,974	-29.0
수도권	21,953	15,839	12,906	-41.2
서울	7,946	3,854	3,276	-58.8
강남 3구	1,661	391	364	-78.1
강북 14구	3,206	2,177	1,813	-43.4
지방광역시	8,623	7,995	6,821	-20.9

자료: 건설교통부

■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에 머물겠으나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전망

- 2007년 소비자물가는 원화절상, 국제유가 안정, 집값 안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2%대의 오름세에 그칠 전망
 - 다만 연초 교통요금, 의료보험 등 공공요금 인상 등과 함께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오름세가 빨라지면서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
 - 올 4월 공공서비스 요금은 전년동월비 3.2%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시내버스(14.2%), 전철(13.5%), 시외버스(10.7%) 등 교통요금이 크게 상승
 - 5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4.7% 인상되었으며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최고 400%의 할증료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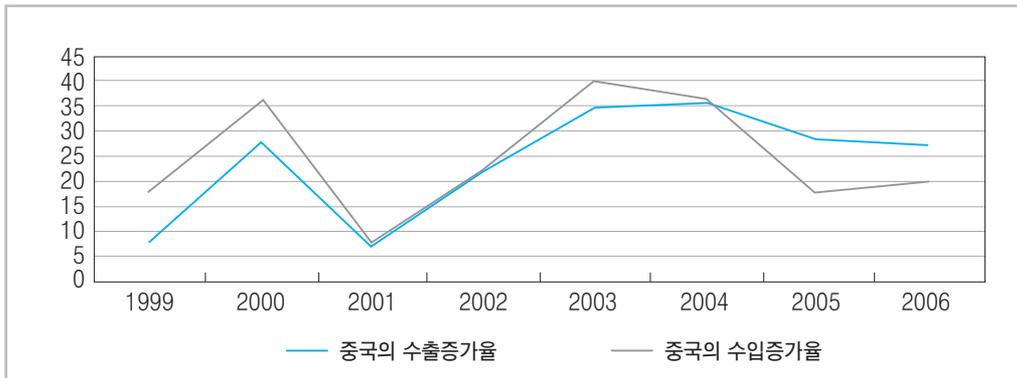
■ 수출증가세 둔화

- 수출증가율이 주력 수출품 등의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
 -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IT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는 내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에 따라 올해에도 비

교적 호조를 보일 전망

- 하지만 미국경제는 올 1/4분기 성장률이 4년만의 최저치인 1.3%에 그침으로써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경우도, 지난해 6월 이후 11차례의 기준을 인상뿐 아니라며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의 인상을 통해 과열경기 진정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부품 및 투자재의 국산화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실제 2005년과 2006년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둔화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3〉 중국의 수출입증가율 추이



자료: KOTIS DB

- 반면 2007년 수입은 국제유가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내수 회복세 확대,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전망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
-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부족 및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법률, 회계, 광고 등의 분야는 경쟁력 열위에 있고 여행,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내국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지속될 전망

■ 시장금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성장률 상승 등 경제의 펀더멘털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임.
 -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수부문의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등은 금리의 주요 상승압력으로 작용
-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미국 금리인하 등은 국내 금리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정책의 무게중심은 국내 경기회복세 강화로 옮겨지면서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또한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국내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

- 미국 경기둔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미국과 유로간 금리 격차 해소 등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많아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능성 높음.
 -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8천567억 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했으며, 최근 1/4분기 성장률도 낮은 수준에 그침으로써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2005년 12월부터 여섯 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지난해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한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미·일, 미·유로지역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될 전망
 -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위안화의 절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 이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 이 외에도 일본의 금리인상 시 엔캐리트레이드의 축소 가능성, 중국의 외환보유

고 다변화 등도 달러 약세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보임.

- 하지만 그동안 원화의 높은 절상률, 경상수지적자 전환 전망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
 - 최근 몇 년 동안 원화가 여타 아시아 통화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돼 왔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 절상되기는 어려울 것.

〈표 II-7〉 주요 아시아 통화의 대원화 환율

(건수(계약기준),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원화 절상률)	
원/일본 엔(100엔)	1,029.76	1,058.76	930.66	821.49	25.4
원/유로	1,348.29	1,422.91	1,273.95	1,199.31	12.4
원/홍콩 달러	153.06	146.96	131.71	123.0	24.4
원/싱가포르 달러	684.17	677.19	615.37	601.24	13.8
원/중국 원(元)	144.0	138.3	125.06	119.81	20.2
원/태국 바트	28.72	28.45	25.45	25.21	13.9

자료: 한국은행

- 또한 2007년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표 II -8〉 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6년	20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GDP	5.0	4.0	4.1	4.5	4.8	4.4
(SA, 전기비%)		0.9	0.9	1.7	1.2	
민간소비	4.2	4.0	4.0	4.1	4.3	4.1
건설투자	-0.4	4.3	4.1	2.7	0.9	2.8
설비+무형고정자산	7.8	9.6	7.8	6.2	7.7	7.8
수출(재화+서비스)	12.4	11.2	9.6	8.8	8.6	9.5
수입(재화+서비스)	11.3	11.6	10.4	10.0	11.9	11.0
소비자물가	2.2	2.1	2.3	2.4	2.9	2.4
생산자물가	2.3	1.8	1.7	1.2	2.3	1.7
경상수지(억 달러)	60.9	-15.2	-11.4	-15.4	2.1	-39.9
상품수지(억 달러)	292.1	61.8	67.5	53.3	55.0	237.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318.5	865.6	913.2	945.7	967.1	3,691.7
증가율%	14.8	14.2	11.2	10.9	9.1	11.2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026.3	803.8	845.8	892.5	912.1	3,454.1
증가율%	18.4	13.9	13.2	12.9	16.5	14.1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1.2	-77.0	-78.9	-68.7	-52.9	-277.5
환율(원/달러, 평균)	955.9	938.9	935.0	927.0	921.0	930.5
회사채수익률(3yrs, AA-)	5.2	5.3	5.3	5.4	5.5	5.4
실업률(%)	3.5	3.6	3.4	3.5	3.6	3.5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3. 위험요인(Downside Risk)

■고유가, 주요 통화 환율불안, 원화 강세는 아직도 위험요인

- 높은 유가와 원자재가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상승세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위험요인임.
 -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불안, 베네수엘라의 산유시설 국유화 등의 악재로 향후 고유가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세계 및 우리경제 성장세를 낮출 수 있음.

■부동산 가격 급변과 가계부채 부실화

-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만약 하락 추세가 빨라지면 두 가지 경로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임.
 - 첫째,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과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음.
 - 둘째,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정적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를 가져와 민간소비 회복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북핵문제, 정치·사회상황 악화

- 근래 경제심리 개선의 중요한 재료는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상황개선임. 따라서 만약 상황이 반전된다면 경제심리가 다시 악화될 수 있음.
 -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는 본격적 경기회복 시점을 상당기간 지연시킬 수 있음.

제3장

이슈분석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1.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2. 독일의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
3. 시사점

1.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 독일경제는 성장회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바 ‘골디락스 (Goldilocks)’ 현상을 보이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
-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아 2000년(3.2%) 이후 최고 기록
- 경기회복으로 독일경제의 최대 난제인 실업률도 올 3월 9.2%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
- 경기회복에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로 안정되어 있음.
- 재정적자도 지난해 EU의 재정건전화 협약(SGP)상의 상한(3%) 이내인 GDP 대비 1.3%로 축소

〈표 III -1〉 독일 경제지표 추이

(%)

	1970 ~79년	1980 ~90년	1991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DP성장률	3.2	2.2	1.9	1.2	0.1	-0.2	1.6	0.9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4.9	2.9	2.4	1.9	1.4	1.0	1.7	2.0	1.7
실업률	2.3	6.0	7.4	9.4	9.8	10.5	10.6	11.7	10.8
경상수지	0.87	-0.35	-1.05	0.2	2.3	2.2	3.8	4.1	4.5
재정수지	-1.7	-2.2	-3.4	-1.6	-3.2	-4.2	-3.6	-3.2	-1.3

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자료: www.OECD.org/topic statsportal, 독일연방은행

■ 최근 독일 경제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 현상임.

-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은 경기순환요인과 구조 개혁의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 경기순환요인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4년 이후 경기상승 국면 진입. 수출 호조가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투자·소비 등 내수회복으로 확산
 - 독일 정부의 노동 복지 공공개혁 등의 효과의 가시화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데 힘입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상승세 및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수출 호조가 2004년 이후 독일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

- 세계경제는 2004~2006년간 활발한 경제성장세를 보임.
 - 세계경제는 2004년 5.3%, 2005년 4.9%, 2006년 5.4%의 성장률을 기록
 - 세계경제의 회복 속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의 독일 수출이 급증하며 경기회복을 견인, 특히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의 고도성장에 따른 투자확대는 독일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

〈표 Ⅲ-2〉 독일의 수출 현황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01년 12월	'02년 12월	'03년 12월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12월
수출	2.5	3.2	5.4	4.6	11.7	15.3
자본재 수출	4.5	1.9	4.8	4.4	8.7	12.9
중간재 수출	-9	6	1.7	7.8	13.2	13.4

자료: 독일연방은행

- 지난해 수출은 14%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약 30%를 차지

■ 투자와 소비의 지속적 회복으로 성장 견인 역할이 내수로 점차 이동³⁾

- 소비증가율이 지난해 3/4분기 0.7%에서 4/4분기 1.8%로 높아지는 등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5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올 2월까지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앞으로도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시사
- 투자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9.8%에서 3/4분기 7.95%, 4/4분기 7.2%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여전히 최고 수준 유지
 - 향후 기업의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Ifo산업신뢰지수는 올 들어 1~2월 중 둔화된 뒤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향후 기업투자의 견조세가 지속될 가능성 시사

■ 수출호황이 내수확대로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02년 22만3천 명(-0.57%), 2003년 37만 명(-0.96%), 2005년 5만3천 명(-0.14%)씩 각각 감소했던 총취업자수가 2006년에 27만 명(0.69%)이나 증가(독일연방은행 통계)

■ 독일경제의 회복세는 유로지역의 호황과 선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유로지역과 독일의 경제성장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속
 -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독일경제의 유로 내 비중은 22%로 가장 높음.
 - 유로지역과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로 보면, 독일(0.98)이 이태리(0.84)나 프랑스(0.95)보다 더욱 유로지역 전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
 - 1997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이 EU지역 실업률을 선형하고 있어 독일 고용개선은 유로지역의 실업률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금융센터 분석보고서, 「독일경제의 호조의 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2007. 4. 10 참조.

- 독일경제가 견인하는 유로지역의 회복은 다시 독일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룸.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
- 독일 경제회복세에는 세계경제의 호황 및 노동, 재정, 복지, 세제 및 규제분야의 개혁 외에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2. 독일의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

(1) 노동시장 개혁

- 독일 정부는 복지존에 따른 근로기피 억제, 자영업 지원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개혁을 추진
 -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Hartz I~III법을 시행, 연방고용청 및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일자리 취업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⁴⁾
 - 노동자의 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mini-jobs)이면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납부를 면제하고 400~800유로(midi-jobs)일 경우 세금을 대폭 경감
 - 수공업법을 개정하여 단순직종에 대한 장인자격증제도를 철폐하는 등 1인 자영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 실업경감을 위한 자영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창업보조(Start-up subsidy) 프로그램을 실시
 - 실업자들은 자영업 창업 시 창업보조 프로그램과 1980년 후반에 시행된 창업연결(Bridging allowance) 프로그램 중에서 양자 선택
 -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실업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창업연결 프로그램은 3년간 순차적으로 지불되며, 첫해에는 600유로, 이듬해 360유로, 마지막 해는 240유로를 지불
 - 1994~2004년 기간 중 창업지원 건수는 37,000건에서 350,000건으로 급증했으며, 장기 실업자들의 참여율도 상승 추세에 있음.

4) 한국은행, 「독일의 경제현황 및 주요 현안」, 해외경제 포커스 2005. 4. 12., p.4.

〈표 III-3〉 독일 자영업자 비중과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영업비중	10.2	10.3	10.4	10.6	11.0
참여율	2.5	2.7	3.5	6.9	9.0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 various issues

- 2005년 1월부터 Hartz IV법을 시행하여 실업급여제도를 개정하고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축소했으며, 2006년 2월부터 취업기피 등 실직자의 구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종전에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지방정부가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social welfare benefits)를 통합하여 종전 사회복지급여 수령자는 실업자 등록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수혜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의 취업유인을 강화시킴.⁵⁾
 - 2005년 이후 실직수당의 실적 전 급여 대체율을 60~67%에서 53~57%로 인하
 - 2005년 이후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실직 후 12~32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였는데, 단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실직 후 18개월간 실업수당이 지급됨.
 - 실업혜택은 실업자의 총자산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결정
 - 추천받은 일자리를 실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실업급여기간을 단축
 - Hartz IV법의 시행으로 210만 명이 실업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 실업자의 경우 지급액이 현행 530유로에서 350유로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이 법은 독일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게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⁶⁾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임금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보조 등 인건비를 임금의 40% 이하로 감축

5) 전계서 p.4 참조.

6) 정식고용을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기간

〈표 III-4〉 고용보호법규(EPL) 강도 비교

	정규직 고용			임시직 고용			집단해고		총EPL		
	80년대말	90년대말	2003년	80년대말	90년대말	2003년	90년대말	2003년	80년대말	90년대말	2003년
프랑스	2.3	2.3	2.5	3.1	3.6	3.6	2.1	2.1	2.7	3.0	3.0
독일	2.6	2.7	2.7	3.8	2.3	1.8	3.5	3.8	3.2	2.5	2.2
스웨덴	2.9	2.9	2.9	4.1	1.6	1.6	4.5	4.5	3.5	2.2	2.2
한국	-	2.4	2.4	-	1.7	1.7	1.9	1.9	-	2.0	2.0
일본	2.4	2.4	2.4	1.8	1.6	1.3	1.5	1.5	2.1	2.0	1.8
영국	0.9	0.9	1.1	0.3	0.3	0.4	2.9	2.9	0.6	0.6	0.7
미국	0.2	0.2	0.2	0.3	0.3	0.3	2.9	2.9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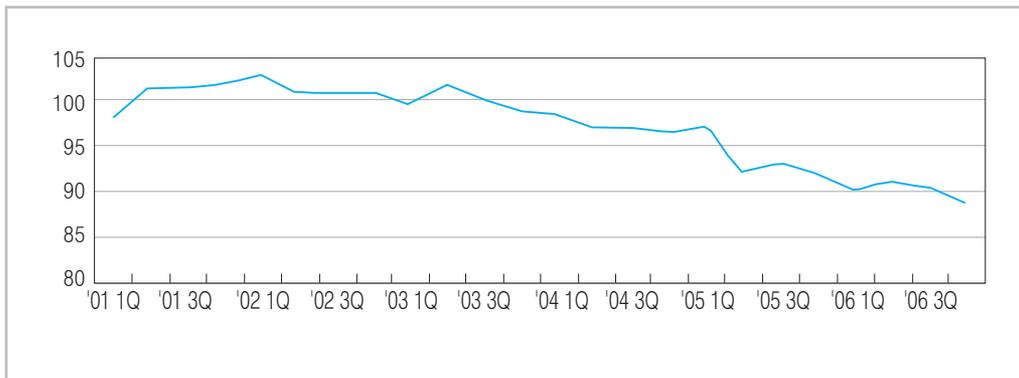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독일의 프랑스 등에 이어 선진국 중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 받고 있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로 유연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ECD가 각국의 고용보호법규(EPL)에 의한 노동규제 수준을 계량화한 EPL강도 지수의 추이를 보면 독일의 경우 1980년대(3.2) ⇒ 1990년대 말(2.5) ⇒ 2003년(2.2)로 점차 하락 추세, 2003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감안하면 독일의 EPL강도 지수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단위 협약으로 노사협상을 이끌어감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2005년 기준으로 사업장의 13%가 단체협약 예외조항 적용에 해당되었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예외조항을 실제 적용했음.⁷⁾
-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 비중이 구서독지역에서는 1995~2005년 기간 중 72%에서 59%로, 구동독지역에서는 1996~2005년 기간 중 56%에서 42%로 하락

7) IAB Establishment Panel

- 독일 노사는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노동시간 연장(주 35시간 ⇒ 40시간)에 합의하는 등 노동시간 연장이 확산
 - 독일 중소기업들은 노동시간 연장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노동시간 연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독일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저하, 이익감소 등으로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했으나, 최근 노조측과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대신 해외공장 이전을 유보하는 사례가 많음.⁸⁾
-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기업의 공동의사결정제도도 수술대에 오름.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조권한의 축소 방침을 검토

〈그림 III-1〉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자료: 독일연방은행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비용 하락 및 고용환경 개선과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를 유발하여 내수 확대의 기반을 조성

-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은 독일의 실효환율을 하락시켜 독일제품의 가격경쟁력

8) 폭스바겐의 경우 IG Metall과 2004년 11월 3일 서독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향후 28개월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노동자 10만3천 명의 고용보장을 2011년까지 한 반면, 기존 노동자들은 1인당 1천유로의 보너스를 1회만 지급받게 되었고, 신규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존 임금에서 10%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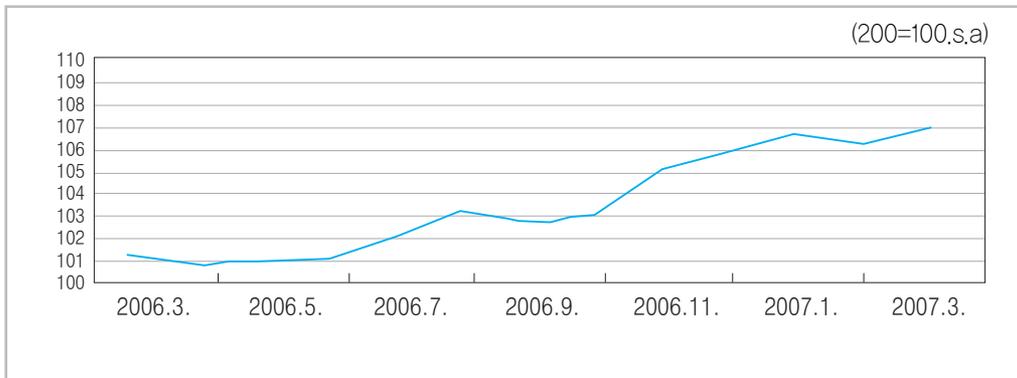
을 강화시킴.

- 수출비중을 감안한 명목 유로환율은 20% 상승한 반면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은 10% 하락
-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가격경쟁력을 보면 임금 관련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던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됨.
- 2000년대 들어 가격경쟁력이 다시 저하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개선된 수준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고용전망도 개선됨.

- 독일의 무역, 산업 관련 기업들의 고용전망을 나타내는 Ifo고용환경 지수⁹⁾는 2002년 말을 저점으로 지속적 상승 기조를 보임.
- 고용환경은 노동시장이 개혁 정책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2005년 말부터 개선의 폭이 커지고 있음.

〈그림 III-2〉 독일의 고용환경 지수 동향



자료: 독일연방은행

9) Ifo고용환경 지수는 매달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분야 7,00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의 고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기준연도=2000)

(2) 공공부문 개혁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큰 정부의 폐해를 점차 심화시킴.

- 복지향상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비중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 이는 영국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대조적
- 과도한 재분배 규정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로 노동의욕이 감퇴했으며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이 높은 실업률을 초래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자유경쟁이 제한을 받으면서 영미식 모델에 비해 글로벌 경쟁 격화, 급격한 기술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지나친 정부 개입이 기업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제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킴.
-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입지 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
 -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정부예산의 약 60%가 지출되고 있음.
 - 독일 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GDP의 약 40%에 달해 미국·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 증가가 기업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통일 후 독일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

- 서독은 1980년대 말에 흑자재정을 달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건실했으나 통일 후 독일의 국가재정은 크게 악화되어 재정적자가 2002년 GDP의 3.7%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EU의 재정건전화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상의 상한(3%)을 지키지 못함.
- 2005년 중 정부부채 규모도 GDP의 71.1%로 동 협약상의 상한선(GDP의 60%)을 4년 연속 위반

- 대규모 재정적자의 발생은 △주정부간 재정균등화 관행에 따른 비효율적 재정운영,¹⁰⁾ △구 동독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및 동독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고용 보조금 지급 증가 등에 따른 것임.¹¹⁾
 - 재정 악화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우며, 오히려 세수증대를 위해 세금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
 -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재정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각 주(州)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방주의에 따라 각 정부의 예산절약 유인기능이 미흡. 반면 미국, 스위스 등 여타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조세 및 지출권한을 보유

■독일 정부는 2002년 이후 연방주의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¹²⁾

- 200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정안정협약을 변경하여 주정부의 재정적자 부담비율을 50%에서 55%로 높이고 주정부의 연간 지출 증가율은 1% 이내로 억제하도록 규정
- 1995년 유럽국민계정체계를 도입하여 재정회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재정지출 합리화, 공무원 감축 및 급여 인상 억제도 시행

-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전체의 2.6%) 감원 계획¹³⁾

10)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와 26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정책을 수립하며, 각 주의 생활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규정(연방주의)함에 따라 주정부의 예산절약 유인이 부족함.

11) 한국은행, 「독일의 경제현황 및 주요 현안」, 해외경제 포커스 2005, 4, 12., p.6.

12) 전계서 p.7.

13)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10월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공무원 감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독일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을 감원할 방침이며 메르켈 총리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2005년 성탄절 보너스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매일 경제신문 2005. 12. 13. 기사)

- 연방정부 공무원 및 독일연방은행 직원의 상여금 삭감(2006년 독일 정부예산에 반영)¹⁴⁾
 - 산업, 주택, 농업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
 - 연방정부 지원금을 2000년 100억7천만 유로에서 2009년 54억 유로로 감축
 - 연방정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민관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운송, 병원 및 사회인프라 분야의 PPP 투자규제 완화
 - PPP 관련 사업의 평가에 대한 정부의 운용방침 제시
 - 재정적자 감축 목표의 절반은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감면 축소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절반은 올해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율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GDP 대비 1%의 세수증대로 이루어지는데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의 3분의 1은 사회보장비 감축분을 충당
- 독일 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근로자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차 대전 이후 최대 감세계획으로 2001~2009년 중 약 60억 유로를 감세
 - 소득세는 기본세율 및 최고세율을 2001년의 19.9%, 48.5%에서 2005년에는 15%, 42%로 각각 인하
 -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년 40%에 달했던 세율을 2004년부터 25%로 대폭 인하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
 - 2001년 이후 독일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쟁국 보다 높은 직접세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혁을 추진

14) 독일경제기술부, 『2007년 연례보고서』, p.66.

- 재정개혁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3년 GDP 대비 4%에서 2006년 1.3%로 하락

〈표 III-5〉 독일의 재정안정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정수입	-0.1	0.5	0.6	0.7
재정지출	0.1	-0.4	-0.5	-0.5
이전지출	0.0	-0.3	-0.3	-0.3
정부소비	0.0	-0.2	-0.3	-0.3
투자	0.0	0.0	0.0	0.0
재정수지 개선 효과	-0.1	0.9	1.1	1.3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2006.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2006.

- 재정적자를 2007년에 GDP의 2.5%, 2009년에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정안정프로그램(Stability Program)을 2006년 EU집행위에 제출했으나 조기 달성
- 독일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금 개혁 법안을 시행
 - 사용자의 연금보험은 줄이고 근로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노동자의 퇴직연령을 늦추어 연금 부담 총액을 확대한 반면 연금 급부수준은 인하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11년부터 2025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연금 수령 개시 최저연령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 보험료를 19.5%에서 2030년까지 22%까지 상향 조정
 - 퇴직 전 최종 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을 53%에서 2020년 46%, 2030년 43%로 하향 조정

-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고령화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¹⁵⁾
- 독일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04년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
 - 의약품, 진료비 및 입원비 환자부담을 높여 2007년까지 건강보험비용을 230억 유로 절감하고 350여 개의 의료보험 기금을 통폐합
 - 종합병원의 진료비용 감축을 위해 모든 질병을 질병군으로 분류하여 각 질병군에 상응하는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2004년부터 도입
 - 일반 의약품에 대한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고 복잡한 본인부담제도를 단순화

(3) 평가와 전망

- 독일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2~3년간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 초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기가 소폭 하강하더라도 완만한 미시조정에 그치고 그동안 단행된 개혁의 성과가 이어질 가능성
 - 내년까지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용개선에 의한 소비 회복세 지속, 기업들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될 듯
 -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성장률을 지난해 2.7%, 올해 2.1%, 내년 2.2%로 전망
 - 경기 호조 및 부가세 인상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올해 -1.2%,

15) 한국은행, 「독일의 경제현황 및 주요 현안」, 해외경제 포커스, 2005. 4. 12., p.8.

내년 -1.0% 등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올 들어 세계경제의 둔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수출도 지난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증가 둔화로 경상수지는 내년까지 흑자기조를 강화할 전망

■ 독일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

- 임금증가 가능성과 부가가치세 증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
 - 독일 최대 노조단체인 IG Metall이 최근 6.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협상 결과에 따라 타 부문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이 현재 미미하긴 하지만,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화 절상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
 - 높은 성장률과 임금상승 가능성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2007년 말까지 4.25%까지 인상할 가능성

■ 일련의 개혁의 성공 가시화로 독일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으나 지속 여부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실행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

- 1% 중반에 머물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과도한 수출의존은 세계경제의 경기하락의 충격에 노출 심화를 의미
 - 개혁이 미진한데다 해외경기 악화의 충격이 겹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1%대 성장률로 복귀할 가능성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에 힘입은 재정적자의 획기적인 감축세의 지속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름.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안정계획은 실업수당지급에 따른 이전지출을 2007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3%씩 줄여 총 1.5%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독일경제가 2008년 이후 독일 정부의 예상대로 2.3% 이상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야 가능
- 따라서 노동·복지·교육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성장잠재력이 제고되어야 재정건전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시사점

■ 사회적 시장경제의 폐해와 통독의 후유증에 시달려 온 독일의 경제회복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및 성장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

-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경제의 침체는 무리한 통일의 후유증 이전에 2차 대전 이후 시행해 온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큰 정부의 폐해가 바탕에 깔려 있음.
- 큰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력 저해,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조장, 복지재원 조장을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양극화 해소와 인적자본 향상 등을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근로 및 기업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조세부담이 중요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못지않게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필요

- 독일의 경우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취업률 제고는 가처분 소득향상 및 소비확대와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로 경기상승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이 필요함.

-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무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을 적극 추진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

- 통일후유증에 시달린 독일경제가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남북통일 비용의 재원을 확충하여 통일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
-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이 필요
-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십과 국력 결집이 중요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1	2.4	5.7	-0.2
2006년	5.0	8.4	18,372	4.2	5.8	3.2	7.6	-0.4
2003년	1/4	3.8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3	4.2	-2.0	3.7	2.7	-4.6	7.7
	4/4	4.1	8.6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1.9	-1.3	3.7	2.4	-0.1	4.9
	2/4	5.7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5.4	1.6	3.9	0.5	3.8	-3.3
	2/4	3.4	5.1	3.7	4.8	2.1	3.1	1.1
	3/4	4.8	7.5	4.5	6.0	2.2	5.5	-1.1
	4/4	5.5	10.1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9.9	5.2	5.4	3.5	7.0	0.2
	2/4	5.1	9.3	4.1	5.2	0.1	7.2	5.0
	3/4	4.8	9.0	4.0	5.8	4.6	11.1	-0.1
	4/4	4.0	5.7	3.7	6.8	4.5	5.3	3.2
2007년	1/4	4.0	3.9	4.0	5.7	7.0	10.3	4.3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5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7	14.4	3,093.8	18.3	292.1	60.9	2,389.6	929.6
2005년 4월	228.7	6.5	212.4	12.8	22.3	-12.0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5.6	14.4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5.7	21.1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0.5	12.4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4.7	-5.3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7.1	14.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4.8	28.3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9	20.6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6.7	2.8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9	18.7	14.8	1.0	2,169.3	971.0
2월	237.9	16.6	235.1	27.8	8.4	-7.8	2,159.5	969.0
3월	268.5	12.1	259.5	13.9	29.1	-4.3	2,173.4	975.5
4월	256.0	11.9	244.9	15.3	18.8	-16.1	2,228.9	945.7
5월	279.2	20.8	262.1	23.9	28.2	13.6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27.2	9.4	2,243.6	960.3
7월	257.7	10.9	255.2	18.8	16.2	-3.9	2,257.2	953.1
8월	273.0	16.9	270.3	22.9	14.4	-6.4	2,270.2	959.6
9월	296.7	21.9	276.4	21.6	31.7	14.1	2,282.2	945.2
10월	280.9	10.5	256.2	13.1	26.7	17.6	2,294.6	944.2
11월	309.4	18.5	267.7	12.2	26.9	42.4	2,342.6	929.9
12월	306.0	12.3	275.2	13.8	57.1	1.5	2,389.6	940.9
2007년 1월	280.8	20.8	276.6	19.8	12.9	-4.3	2,402.3	938.3
2월	262.7	10.5	252.3	7.3	23.9	4.0	2,428.1	940.3
3월	306.1	14.0	290.9	12.1	25.0	-14.9	2,439.2	929.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3년	2.2(3.1)	3.6(3.4)	3.6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7)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2.3	2.2	3.5	5.7	8.3	7.9	5.17	1,352.2
2005년 3월	2.7(1.0)	3.0(2.0)	4.1(3.6)	8.5	6.6	6.5	4.48	988.2
4월	2.9(1.7)	3.1(2.1)	3.8(3.7)	11.7	7.0	6.6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7.0	6.6	4.12	939.0
6월	1.6(0.6)	2.8(1.7)	3.6(3.8)	11.0	7.4	7.2	4.18	991.3
7월	2.0(1.4)	2.6(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7	7.6	4.75	1,101.8
9월	1.6(2.2)	2.5(2.9)	3.6(4.0)	5.8	6.6	6.9	4.92	1,171.0
10월	1.7(2.4)	2.3(2.7)	3.6(3.9)	10.3	6.5	6.9	5.2	1,190.9
11월	1.1(1.9)	2.5(2.3)	3.3(3.5)	7.6	6.6	7.2	5.5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7.0	7.4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2(0.6)	3.7(3.4)	24.6	7.3	7.2	5.5	1,379.3
2월	1.7(0.6)	2.0(0.8)	4.1(3.5)	-11.4	7.2	7.4	5.33	1,341.7
3월	1.4(0.7)	2.0(1.4)	3.9(3.5)	5.8	6.6	7.0	5.3	1,331.7
4월	1.5(1.5)	2.0(1.5)	3.5(3.5)	3.7	6.8	7.4	5.24	1,415.9
5월	2.7(2.1)	2.3(1.7)	3.2(3.4)	7.9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7	7.7	7.3	5.17	1,249.2
7월	2.8(2.5)	2.4(1.9)	3.4(3.5)	6.0	7.7	7.3	4.89	1,278.0
8월	3.4(3.4)	2.7(2.5)	3.4(3.5)	5.3	7.5	7.4	4.77	1,316.1
9월	3.1(3.6)	2.5(2.8)	3.2(3.4)	-0.1	9.0	7.9	4.69	1,356.5
10월	1.9(2.6)	2.2(2.3)	3.3(3.4)	13.2	10.1	8.7	4.62	1,354.0
11월	1.9(2.1)	2.1(1.8)	3.2(3.4)	5.8	11.1	9.4	4.72	1,403.9
12월	2.2(2.2)	2.1(2.1)	3.3(3.3)	6.9	11.4	9.6	4.82	1,418.8
2007년 1월	1.5(0.0)	1.7(0.2)	3.6(3.3)	-13.7	11.3	9.8	4.97	1,379.3
2월	1.7(0.2)	2.2(0.9)	3.7(3.2)	28.1	11.5	9.9	4.91	1,434.9
3월	2.2(0.7)	2.2(1.5)	3.5(3.2)	6.3	11.5	10.2	4.79	1,431.6
4월	2.5(1.8)	2.5(1.9)	3.4(3.3)				5.34	1,517.1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2년	8.0	78.4	8.6	8.3	21.0	8.8	33.0	11.2	-8.1	24.5
2003년	5.2	78.3	-0.8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2	80.4	-0.4	-1.4	6.8	3.7	-3.7	11.1	4.9	14.8
2005년	6.3	79.7	2.9	2.1	1.5	6.3	7.4	4.1	-3.7	7.5
2006년	10.1	81.1	4.2	4.9	14.2	7.4	9.0	3.7	1.9	4.9
2005년 3월	4.43	80.4	1.9	-3.4	-3.2	0.4	69.3	3.1	-3.6	6.1
4월	3.31	79.4	1.9	-3.7	-10	-1.0	23.5	6.2	-3.3	11.1
5월	3.61	79	4.5	1.4	-14.5	8.0	50.2	8.8	1.8	12.5
6월	3.7	80	3.2	3.8	-12.2	1.7	35.4	8.6	2.7	11.4
7월	7.03	80.6	3.6	4.1	26.2	11.1	4.3	2.8	-4.2	5.7
8월	6.77	79.8	5.6	6.3	18.3	1.4	16.2	2.8	-12.1	9.4
9월	7.64	79.2	3.8	4.8	0.1	0.2	23.7	0.8	-11.1	6.9
10월	8.05	79.2	2.5	4.9	0.7	7.2	-36.5	1.8	-4.8	4.2
11월	11.76	81.3	5.8	8.1	11.7	13.0	0.8	10.0	-4.4	16.5
12월	11.34	79.9	5.6	8.7	42.8	21.7	-18.6	4.5	1.3	4.5
2006년 1월	7.73	83.1	4.5	3	-2.3	1.5	10.9	0.6	-12.5	6.5
2월	21.4	80.9	3.3	12.4	37.5	4.7	29	8.0	-13.5	16.6
3월	10.67	81.3	4.2	5.9	-0.6	11.7	-34.1	4.4	-9.6	10.5
4월	10.68	79.3	4.2	4.7	15.3	13.9	-17.7	0.2	-6.4	3.4
5월	12.59	80.9	5	6.8	12.3	5.7	-21.7	-0.8	-5.5	1.1
6월	11.24	81.9	4.3	5.5	35.1	0.7	-6.8	-0.2	-5.6	2.3
7월	4.89	76.7	0.4	-1.9	-2.4	3.9	6.8	-2.4	-2.0	-1.4
8월	11.67	81.2	4.3	3.3	15	14.4	15.0	1.7	8.4	0.5
9월	17.6	84	8.4	14.2	33	17.7	98.5	14.4	19.1	12.1
10월	5.5	81.9	3.4	0.3	34.2	5.6	-0.2	6.1	18.7	2.2
11월	7.13	81.6	4.8	4.4	10.1	7.8	44.9	5.6	10.1	4.7
12월	3.04	80.5	3.8	1.9	-4.5	2.3	29.8	6.3	10.4	5.0
2007년 1월	7.46	81.4	5.1	6.4	24.9	15.4	9.7	10.5	14.1	9.3
2월	-0.59	82.0	7.2	4	17.2	12.8	40.1	8.3	25.9	2.3
3월	3.1	81.4	3.5	3.2	4.9	6.4	32.0	2.0	16.1	-3.6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7년 5월 25일

1판1쇄 발행/2007년 5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중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